전국의 생생한 NEWS를 한눈에
정론직필 시대정신 지방발전

전국매일신문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

1997년 6월 24일 창간 제5908호 jeonmae.co.kr 2021년 2월 5일 금요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6만가구 공급

역세권 공공주택 확대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 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 이날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연합뉴스/ 한상균기자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재건축 신설

3기신도시 포함 수도권만 200만가구

5대 광역시에도 22만가구 물량 공급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최대 규모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역세권에서는 700%, 준공업지역에서는 500%까지 용적률을 올렸으며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주택 공급 부지확보 물량 2021년~2025년 추계치. 단위: 만 호

	총계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 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					
계	83.6	13.6	12.3	1.2	6.1	11	3	26.3	4.1	6
서울	32.3	9.3	7.8	0.6	3.3	6.2	0.8	–	1.8	2.5
인천·경기	29.3	2.1	1.4	0.3	1.3	1.6	1.1	18.0	1.4	2.1
5대 광역	22.0	2.2	3.1	0.3	1.5	3.2	1.1	(광역) 5.6 (지방) 2.7	0.9	1.4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신규사업을 통해 약 57만3000호를, 신규 공동택지 지정 등을 통해 26만3000호를 확보할 방침으로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호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22만호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한다.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000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000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000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000호, 그외 지방은 2만7000호가 예정됐다. 공공택지 후보지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청약제도도 개편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을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평택시 勝'

대법, 충남도·당진·아산시 청구 기각

당진시장 "이해되지 않는 판결" 유감

평택시장 "판결 존중…상생협력할 것"

대법원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평택시 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서 평택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자부 장관은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강원도, 내년 국비 8兆 확보 총력 … 역대 최대

확보액 7조2150억 대비 7850억 증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체계 조기 구축

강원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8조원 확보를 목표로 국비 확보 활동에 본격 나선다. 이는 확보액 7조2150억원 대비 7850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4차 산업·뉴딜사업 등 도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주요 발굴분야로 정하고 정부예산 신청 전까지 최대한 많은 신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날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국비 현안회의를 개최해 시·군별 국비 현안사업 발굴과 상호 공조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4일에는 제1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 각 실국에서 1차적으로 발굴한 신규사업과 추가사업 발굴 방안,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공유해 사업발굴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업체계를 조기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주관으로 개최되는 강원도-민주당 강원도당 예산정책 현안 간담회에 강원도지사와 당 소속 12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당 차원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차호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해 국비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회, 도, 시·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비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하고 실국장 책임하에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하동·구례·곡성·광양 섬진강권에 통합 관광벨트 만든다

하동·구례·곡성군·광양시 업무협약

국내 최고 관광명소 조성 상호 협력

곡성~구례~광양~하동으로 이어지는 섬진강권에 국내 최고의 통합 관광벨트가 조성될 전망이다.

경남 하동군은 4일 구례·곡성군·광양시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섬진강 수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 및 e모빌리티스테이션, 5G 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섬진강권 스마트 관광시스템(가칭 섬진강 통합패스)'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매화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관광부서 간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섬진강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국비 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4개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단신브리핑

내부순환 보조 BRT 5일부터 운행 시작

세종시는 5일부터 내부순환 보조 BRT(B5) 운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06시 05분부터 10시 55분까지며, 1일 고운동 방향 15회, 시청방향 15회 등 총 30회에 걸쳐 운행되며 배차 간격은 약 20분으로 B0(구 900번)와 배차시간 중복 시 5분 간격 조정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최대 6개월가량 시범 운행을 실시해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시설보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상옥 시 교통과장은 "그동안 BRT 접근성 문제로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과 방역 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혁신프로젝트 '최우수'

충북도의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혁신프로젝트'가 고용노동부 주관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일생활균형 추진단에 사업을 위탁했다. 일생활균형 추진단은 산업계, 노동계,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일생활균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기업 20개소를 발굴해 근로자를 위한 문화활동비, 직원교육비 등 특전을 부여했다.

또한 우수기업 8개사를 선정해 우수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다. 우수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집중근무를 통해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가정의 날을 지정해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회식문화를 지향했다.

김한기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도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을 계속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만족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 kr>

올해 7500명 어르신 무료급식 47억 투입

경북도는 올해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결식우려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의 단가는 3000원으로 도는 54개소의 무료급식 제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며 예산 지원 대상기관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읍·면 지역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인 이상, 주 1회 이상인 급식시설도 지원 대상이 된다.

사각지대 어르신이 없도록 무료급식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강성조 행정부지사 박성수 안동부시장, 이상근 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날 무료급식 제공기관인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50여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할 도시락에 음식을 담고 직접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건의

공무집행 공정성·신뢰성 확보…4급이상 공무원 확대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경기도가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 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해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 배경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과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경기도청 제공>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경기버스' 현장점검 이한규 경기 행정2부지사는 4일 의정부 관내 버스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경기버스'를 만들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충남도 해외 통상사무소, 지난해 237만 달러 수출 지원

수출 활력 제고 전략 회의 개최…성과 공유·발전 방향 논의
올해 500만·내년 1000만·2025년 2000만 달러 수출 지원 계획

충남도가 지난해 총 237만 달러 규모의 도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4일 '해외 통상사무소·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 전략 회의'를 개최해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통상사무소의 성과를 공유하고, 운영 현황을 살폈다.

도는 올해 500만 달러, 내년 1000만 달러, 2025년 2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교역 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도는 지난해 인도 뉴델리, 베트남 하노이에 각각 통상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바이어 발굴 ▲현지 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내 기업 수출 계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수출 계약을 지원한 도내 기업은 총 54개사로 인도 통상사무소가 30개사, 베트남 통상사무소가 24개사를 지원했다. 54개사의 수출 계약 규모는 총 237만 6192달러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69만 6092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완료됐고 현재 168만 100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라는 장벽이 있지만 해외 통상사무소가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수출 관련 기관과 각 기업이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협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매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청년창업·행복주택 짓는다

수원시-LH 복합개발 협약
"다양한 공동사업 성공 초석되길"

경기 수원시는 4일 LH 경기지역본부와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오는 2023년 6월 입주를 목표로 총 2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산로2가 40-30 일원 1271㎡의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9150.75㎡ 규모로 건축된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갖춰지고, 2~3층은 공공청사, 4~5층은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5~12층에 행복주택 58호가 갖춰진다.

특히 1층 일부 공간에 근린생활시설을 입점시켜 임대수입을 공공청사 건립비에 충당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보상업무와 운영관리 및 행정지원을 하고, LH는 건축물 시공과 행복주택 및 수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시와 LH는 향후 화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등에도 행복주택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양한 공공시설을 공동개발해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매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수원시가 LH와 처음으로 함께 하는 공동개발사업으로, 앞으로 다양한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경남도,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에 414억원 투입

경남도는 다양한 분야의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산림휴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사업분야는 자연휴양림 13개소 조성·보완 139억원, 치유의 숲 3개소 조성에 42억원, 산림욕장 보완에 5억원, 숲길 보완과 연결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산림레포츠 시설 2개소 조성에 48억원, 유아숲체험원 5개소 조성에 9억원, 목재문화체험장 2개소 조성에 38억원, 수목원 4개소, 생태숲 3개소 조성 보완에 34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18억원을 투입해 산림복지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52명을 배치한다.

현재 도내에는 산림휴양시설 93개소를 운영중에 있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도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 중인 27개소 시설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관학 협력강화,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 제공과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강원도, 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본격 운영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 지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여성취·창업 박람회, 여성창업 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이다. 특히 지난달 여성가족부와 도로부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광역형 수행기관으로 신규 선정돼 ▲여성고용유지 지원 ▲직장문화개선 지원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구직여성, 재직 여성, 기업,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우선 여성고용유지 지원 분야에서는 구직준비단계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초년생의 입직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고, 구직준비단계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연간 2회 지원한다. 또, 직장문화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맞춤형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지원하고,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3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정책자문 및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도내 9개 새일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취지와 정책 시행제도 파악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운영한다. 인식개선 분야에서는 '경력단절예방의 날' 전국 통합 인식개선 캠페인 행사 및 토크콘서트,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해 도내 일·생활 균형 정착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과 사례공유를 통한 예방방법 모색 기회를 마련한다.

노명우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초미세먼지 신박하게 줄인다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경기 안양시는 올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1㎍/㎥ 목표로 수송·산업·생활부문과 시민건강 보호, 과학적 기반, 시민 홍보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에 총 336억5900만원을 투입한다.

● 수송부문-친환경차량 확대 보급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수소차량과 전기차량 보급을 확대한다. 수소차량은 9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륜차를 포함해 승용, 화물, 버스 등에 대한 전기차량 보급도 785대를 목표로 잡았다.

어린이통학차량은 LPG로 전환을 추진해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경유차 35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함과 아울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325개 공회전 제한구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도 수시로 점검한다.

● 산업부문-드론·IoT활용

먼지방지 시설 설치비 8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 179개소에 이르는 대기배출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도 체계화 한다.

드론과 IoT를 활용해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 감시와 민원대발 현장을 지속 모니터할 민간감시단도 운영한다.

● 생활부문-일상적 대기오염 차단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5월에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 10대를 집중 가동할 방침이다. 경수대로, 흥안대로, 관악대로, 안양로, 만안로, 박달로, 평촌대로, 시민대로 등 차량통행 많은 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 시민건강보호-공기청정기 확대 지원

62개 학교와 어린이집 420개소, 법적 규모에 미달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41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보조하고, 경로당 236개소에 필터교체를 지원한다. 도시텃밭 조성을 추진함과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상자텃밭을 보급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벽면녹화가 이뤄진다. 5월까지 관평로212번길 양방향 1km구간에 관목 2만주로 녹지띠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미세먼지 5개년 계획 추진 방향 밝혀
336억5900만원 투입…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드론 활용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석수역 등 3곳 미세먼지 저감장치 20대 설치

● 과학적 기반-스마트시스템 구축

5월까지 석수역, 범계역, 인덕원역 등 3개소에 모두 20대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100대를 설치한다. 특히 병원과 어린이집에 IoT기반의 자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해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에 나선다.

● 시민홍보-교육·여론조사 정책 반영

오는 6월 중 전문기관에 의뢰해 일반시민 백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에 관한 이해도와 의견을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미세먼지를 낮추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며 "올해 한차원 진화된 방식으로 미세먼지 낮추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경기 안양시는 올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1㎍/㎥ 목표로 수송·산업·생활부문과 시민건강 보호, 과학적 기반, 시민 홍보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에 총 336억5900만원을 투입한다. 사진 좌측부터 수암천 환경정화, 매연차량 단속. <안양시 제공>

지방정가 소식

황대호 경기도의원 "남양주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예견된 참사"

이재정 교육감에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민주 · 수원4)이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남양주FC 축구클럽 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운동에서 꿈을 키우려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만 내몰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학교체육 비리감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감사를 빙자하여 묻지마 식으로 학교 운동부를 해체해 왔고, 대안 없는 클럽스포츠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비참한 훈련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수 없이 경고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마저 무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결국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고 이번 사고마저 발생되어 예견된 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아직도 성적지상주의와 만연한 폭력, 무리한 합숙훈련으로 덧 씌여진 엘리트체육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하고 "운동에서 자신의 꿈을 찾으려는 학생선수들은 교육청에게 있어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며 공개 질의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스포츠 강대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야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공공기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학생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이번 사고로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하늘로 간 학생과 이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경기도의회 건교위, 광역버스 예산 국비 50% 부담 이행촉구 건의

기재위·법사위 방문 건의문 전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사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올해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설명과 건의문을 전달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국민의힘 "김명수 자격상실…사퇴해야"

김종인, 조부 김병로 언급 사퇴 압박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
주호영 "재판 코드인사로 사법부 오욕"
김태년 "김종인, 태극기부대로 변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안타깝게도 결국 8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당시 대법원장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쇼'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김 위원장의 조부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는 그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유리한 이른바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1년을 허비해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정지를 인용했던 재판부, 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모두 인사조치해 재판부를 깨버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거짓 선동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충분히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억지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 태극기부대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사라져가는 북풍 색깔론을 되살려낸 김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더 김 위원장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하다"며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은 이제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박범계 "검찰개혁·조직안정 인사할 것"

"윤석열과 1차례 더 만날 때는 구체적 인사안 갖고 갈 것"
"'수사-기소 분리' 방향 맞지만 수사역량에 공백 없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만남에서 인사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현장의 인권 보호나 적법 절차 등이라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하나는 조직안정에 관해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요구가 강한 것 같다"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 상반된다고 생각지 않아서 두 가지 큰 축을 고려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원칙으로 삼은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변함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리와 사람 배치,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 구체화 돼가고 있지만 더 가다듬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1차례 더 만날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르면 이날 다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들을 검찰개혁에 동참시켜야 하고, 수사권 조정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되 수사권 개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얘기하고 있고 관련 법들이 발의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방향은 옳지만 국가적 수사 대응 역량 등에 공백이나 허점이 생기진 않아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필요성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며 "그 주제를 포함해 총장과 만나서 제도개혁 방안들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수처법을 그렇게 해석해 (청문회에서) 그렇게 답을 드렸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현실 조건들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서울·부산서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10%포인트 격차 벌려

서울 국민의힘 37.1% vs 민주 24.8%

서울과 부산 권역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10%포인트대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1%, 민주당은 24.8%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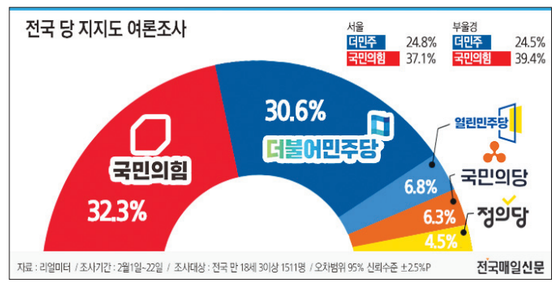
양당 격차는 12.3%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밖이다.

부울경에서도 국민의힘 39.4%, 민주당 24.5%를 각각 나타났다.

전체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32.3%, 민주당 30.6%, 열린민주당 6.8%, 국민의당 6.3%, 정의당 4.5%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리얼미터의 지난주 조사때 보다 3.5%포인트 하락한 39.0%였다.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6%,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13.5%포인트 큰 폭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與 "추경 조속편성, 전국민·선별지급 모두 반영"

국가 국민 대신해 빚 지고 힘이 될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홍의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병행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4% 수준으로 일본(241.6%), 미국(128%), 독일(73.9%)에 비해 양호하다면서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현실화할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공공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급 연령을 각각 13세, 16세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로 명시한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주민과 함께 미래 양천 도약 이끌 새로운 길 나갈 것"

2021 새해설계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2021년에는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미래 양천의 도약을 이끌 새로운 길을 힘차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양천구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와 방역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안전망 구축에 집중 편성됐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올 새로운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YES양천의 6대 비전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모자건강증진센터+키움센터 복합문화공간 개관 눈앞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사업으로 재탄생

도시재생뉴딜·목동아파트 재건축 등 스마트시티 거듭
돌봄SOS센터 18개동 확대·어르신에 맞춤형 정보제공

내년 양천중앙도서관 완공 교육도시 양천 인프라 완성
아동학대 발생 사전예방~사후관리 4개 프로세스 구축"

● 활력도시 YOUNG 양천

모자건강증진센터와 어린이집 키움센터가 함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건강힐링문화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임신·출산·육아까지 단계별 건강·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족욕실·명상실·힐링쉼터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에 완공 예정인 신월6동 복합청사의 50플러스센터에서는 50대 은퇴인구가 사회·경제적 역할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 생태도시 ECO 양천

목마·파리·오목·양천·신트리 근린공원 등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30년이 지난 파리공원이 다시 태어난다. 파리공원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요구에 모두 충족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 중이다. 연의생태공원 내 연의생태학습관도 증축해 더욱 다양한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미래도시 SMART 양천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1:1로 스마트폰 메신저 앱 활용법 등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음성 안내메세지를 통해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스쿨존에 설치했으며, 캔과 페트병을 구분하는 인공지능 분리수거 자원회수로봇을 목3동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마을 중심광장으로서의 시장 활력 사업, 노후 주택지 재생을 통한 정주 활력 사업 등을 포함해 총 5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신삼문화발전소, 청년주택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의 14개 단위사업에 총 8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월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월동 생활권 전체의 균형적인 도시재생을 이끈다.

특히 스마트 시티로 거듭날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하고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 포용도시 YOU 양천

그동안 둘째아 이후로만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도 20만원씩 지원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과 스마트기기 등의 구매에 쓰도록 입학준비금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한다.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성인을 위한 돌봄SOS센터 사업은 18개동 전체로 확대 운영되며, 고령친화도시 위상에 맞게 어르신들에게 맞는 건강·일자리·교육 등 노년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는 서울 자치구 첫 어르신 전문지 '시니어 플러스'도 분기별로 발행될 예정이다.

● 교육도시 Edu 양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활용해 시대 흐름을 반영한 지역 평생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새롭게 만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 스마트 양천 미래교육센터, 2021년 양천중앙도서관에 이어 평생학습관까지 완공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양천구의 3대 평생교육 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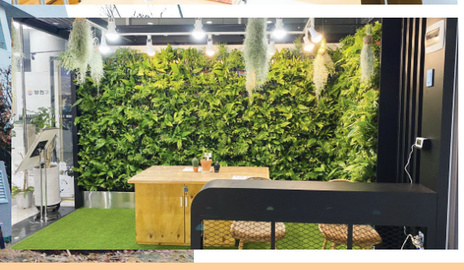
● 안전도시 Safety 양천

위급한 상황에 주민의 안전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이 서비스가 더욱 신속하게 지원 가능해진다. 지난해 완료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활용해 안심이(앱) 가입자는 어디서라도 앱 실행 후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인근 방범 CCTV 영상을 양천 U-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해112 등 긴급호출 된다.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보장범위와 내용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사후관리의 4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먼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관을 민간전문인력으로 공개 채용한다. 채용된 전문관은 현재 양천구에 배치된 전담 공무원 3명과 함께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피해아동의 응급조치,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등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왼쪽 사진) 양천중앙도서관 전경과 김수영 구청장 합성. (사진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양천중앙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 그린시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수상 모습. 신월6동복합청사 조감도. 건강힐링문화관 전경. 목동시가지 전경. 스마트가든 모습. 〈양천구 제공〉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새해는 더 많이 행복하세요

2021년 약속완성의 해 "희망을 열고 행복을 잇다"

온택트 영상으로 신년인사회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2021년 새해를 맞아 8일 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제작한 신년인사회 영상을 공개한다.

신축년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구민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약 20분 분량의 동영상으로 사전 제작됐다.

온택트 신년인사회 영상은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 동영상을 시작으로 의장 신년사와 도봉구청장·국회의원 축사, 의원 전체 새해 인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에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과 구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설 연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단축 운영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설 연휴기간(2월 11일~14일) 동안 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설 연휴에 성북구 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방문해야 한다.

이외에도 성북구청 바람마당(보문로168)과 서울시 민방위교육장(화랑로 376)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임시선별진료소 두 곳은 기존의 주말·공휴일 운영시간을 적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학원·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손실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충실하게 이행했음에도 제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에 대해 영업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해주고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사업자무등록 및 소상공인 기준 초과로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소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감내해온 영업주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예정이다.

구는 지원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설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1인이 여러 업소(학원, 문화유통업소, 실내체육시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스마트 ZOOM 활용법' 교육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노나19 여파로 어린이집이 장기 휴원하면서 긴급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가정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오는 9일 '스마트 ZOOM활용법' 교육을 실시한다.

센터는 현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ZOOM(줌)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곧 다가올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부모교육 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강의뿐 아니라 교육 시간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궁금증도 실시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0억원 융자 지원

서울 중랑구(구정창 류경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 하반기 각각 20억원씩 모두 4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기존 1.5%에서 올 연말까지 0.8%로 대폭 인하해 적용(기존 대출자의 잔여대출분도 포함)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업체 및 금융업, 부동산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전 직원 대상 설맞이 '청렴 모의훈련' 실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모의신고 훈련 '청렴신고 다가가기'를 시행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청렴신고 다가가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품수수 신고 절차 예행연습을 위한 모의 훈련이다.

구 직원이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 후 직원 중 불특정 일부에게 이를 제보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수신한 직원들이 구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신고 센터에 올바르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면 훈련은 종료된다.

광진구, 코로나19 43명 발생 '포차 끝판왕' 2개월 영업정지

방역수칙 미준수 과태료 부과…유사업종 민·관 합동단속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 발생한 것과 관련, 포차 끝판왕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4일부터 4월 4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4일 구에 따르면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업종에 대해 경찰 및 민·관 합동 단속을 주 3회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24일, 27일 포차 끝판왕 이용자 212명 전원에게 자가격리 통보 조치했다.

또한 지난 24일~30일 이용자 전수조사 후, 두 차례 문자 발송 및 전화로 코로나19 검사 안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7시경 문자를 발송해 '포차끝판왕' 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이에 앞서 구는 주중과 야간 경찰 및 민·관합동 점검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초 확진자 발생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도봉구, 탄소제로 원년 온실가스 5만 톤 줄인다

이동진 구청장 "탄소저감 노력 활성화되도록 선도적 역할 할 것"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1년을 탄소제로로의 원년으로 삼고 온실가스 5만 763톤CO_2eq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동진 구청장은 "올해는 2050년 탄소제로로의 긴 여정을 출발하는 원년이라 의미가 크다. 아래로부터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된 탄소저감 노력이 사회 전 분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 T/F'를 가동하고,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것이다.

올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도봉'이라는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진행해나간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부구청장, 지속발전가능국장 등 12명 내외로 구성된 '도봉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및 서울시와 연계한 '도봉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수립한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서 살펴볼 수 있다. 7개 부문 61개 사업 중 27개 사업으로 이뤄진 감축 추진계획은 녹색건물 34,011톤 등 부문별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녹색교육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34개 사업도 지속적인 공정 관리를 함께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370억 원이며 이 같은 감축 전략 사업으로 277개의 그린뉴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지난해 6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한 이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며, 탈(脫)탄소 시대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선도하고 있는 것.

구는 지난해 8월, 12개의 유관 과와 26개의 팀으로 이뤄진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T/F'를 구성하고, 9월에는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으로 명문화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이정훈 강동구청장(앞줄 가운데)이 3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강동구 주민자치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이정훈 강동구청장, 17개 전 洞에 주민자치회 출범 선포

"주민 주도 강동형 주민자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강동구 주민자치회 출범식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주도의 강동형 주민자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 구에 따르면 명일2동, 고덕1동, 천호3동, 성내2동, 길동 등 5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올해 17개 전동으로 확대 실시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로 구성된 17개동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주민자치회 대표 위촉장 수여 ▲실천선언문 낭독 ▲주민자치회 확대 경과 보고 ▲임원단 소감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 2년간 5개동에서 자치의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직접 실행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17개동 확대 실시가 기대되며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송파구, 방이동에 청년창업센터 착공

송파구-LH공사, 3일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구는 2018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효율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취업·창업 지원 공간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역할과 책임, 사업비 분담 및 정산, 건축물의 소유·관리 등 사업추진의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방이2동 주민센터(백제고분로 495) 일대 1만 1,276㎡의 부지에는 지하2층~지상1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현대화된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가 조성되어 생활권 내에 부족했던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주택(160호)을 함께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취업·창업, 복합 문화행정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창업지원시설은 주변 동종의 오피스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엔젤투자기관 등을 유치해 창업 준비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업부지 내 방이근린공원은 열린 테마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공원 지하에는 2층 규모(383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방이맛골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부속절차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이 지난해 12월 완료돼 공사시행 만을 앞두고 있다.

현재 사업부지 내 기존 공공시설인 방이2동 주민센터, 방이복지관, 경로당 등은 이주를 완료했다. 철거공사를 위한 부지 내 지장물 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거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공은 LH공사에서 선정한 코오롱글로벌(주)와 동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장보궐선거 60일 전인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장보궐선거의 각종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02-744-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종로구,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서울 자치구 1위'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교통문화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운전 및 보행실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의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구는 하루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다. 세부 평가항목인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율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지역교통 안전정책 이행 정도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노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간 꾸준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진행해 얻은 결과로 평가됐다.

또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 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을 운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민 안전에 초점을 둔 내실 있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구는 올해 야간 운전시 운전자가 관련 표지판과 보행자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반딧불형 횡단보도' 조성과 '태양광 LED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강남구, 비장애인 주차하면 '경고음'

'ICT 장애인주차구역' 본격 시행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17개 공영주차장 93면에 비장애인 차량 진입 시 경고음을 내고, 단속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장애인 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축한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행정정보망이 연계돼 주차위반 차량을 자동 감지하는 동시에 경고음과 안내방송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구는 새롭게 실시되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시범운영하며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기간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도 거뒀다.

구는 22개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거쳐 연내 30면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장정은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도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와 연계한 장애인 스마트정류장'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높이 조절 싱크대·천장형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해주는 '스마트 홈 지원' 등으로 구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시티 강남'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관악구, 테마별 골목상권 조성…36억 투입

지역사랑상품권에 특별할인 10% 더해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36억원을 투입해 골목별 주변 자원과 연계한 테마골목길을 조성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구는 골목상권을 5개 권역별로 2개소씩 나눠 총 10개소에 상인조직화 및 컨설팅 지원, 도로·조형물 설치 등 인프라 조성, 환경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구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3억 1,000만원을 추가해 예술가 40명과 함께 골목가게 144개소에 아름다운 볼거리를 더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관악힘콕 상품권'을 1억원 발행했다.

올해 구는 관악사랑상품권 규모를 390억으로 정하고 설 연휴 특별할인 10%를 더해 1차 189억 상품권을 발행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강서구, 산불방지체제 본격 가동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근교산 중심으로 진압훈련 나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리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총 31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7개조로 나누어 운영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당직실에서 상황을 유지하며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주요 임무는 ▲산불진압훈련 및 산불캠페인 등 산불예방활동 ▲산불감시 활동 및 진화장비 점검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및 뒷불감시 등 진화체계 확립 ▲신속한 진화 상황보고 등이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동진화를 위해 지상진화대 36명이 긴급 투입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조진화대 120명도 편성했다.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개화산, 우장산 등 근교산을 중심으로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산불진압훈련도 벌인다.

또 산불 발생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등산로 주요 입구와 능선부 25개소에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을 설치했다. 물 공급이 어려운 산림 내에서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압수관장비보관함 2대도 비치했다.

김윤미 기자 〈kym@jeonmae.co.kr〉

구로구, 중1 대상 온라인 글로벌 연수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양성, 다양한 체험과 소질개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중학생 온라인 글로벌 연수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지에서 교육을 듣고 체험하지 못해 아쉽지만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은 13일까지 4주간 주 5회 진행된다. 각 가정에서 핸드폰, PC를 활용해 수업에 참여한다.

신도림, 구일, 영서 등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0명이 연수대상이다. 참여 학생은 자유학년제 학생 중 글로벌 활동 관심도, 생활영어 수준 등을 고려해 선발됐다.

프로그램은 실시간 원격 교육인 ESL Class, 수업 관련 질의응답, 현지 학생들과 상호 교류하는 Cultural Class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글로벌 유한공고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기획은 캐나다 윈저시 카톨릭 공립교육청에서 맡았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도심 체류형 관광명소로 탈바꿈 할 것”

2021 새해설계 ·신축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강북구를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숨 쉬는 역사문화관광의도시로
변모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민선5·6·7기 3선 구청장으로,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는 9년간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을 실천해 온 결과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위해
우이선 경천절 일대를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조성, 이를 위해
올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산악전시체험관’, ‘청자가마터 체험장’,
‘국제규모 인공 암벽장’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이행평가, 6년 연속 최우수등급 받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 곧 완성돼
자치구 최초, 코로나19 스마트선별진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방역 정책의 수장으로서 자평할 방역 대책이 있다면.

올해 1월 20일부터는 자치구 최초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 선별진료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은 방문 전 미리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이후 생성되는 정보무늬(QR코드)를 찍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진료대기과정 동안 피검사자 간 교차 감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졌다. 또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하고 선별진료 현장업무는 간소화됐다. 그만큼 업무효율이 높아지면서 검사결과 통보시간도 줄어들게 됐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평가다.

강북형 워킹스루(도보이동형)와 글로브 월(의료용 분리벽)이 결합된 형태의 ‘원스톱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폭염에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의료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검사 대상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GIS 맞춤형 정책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다방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올해 보다 정밀하고 섬세한 방역정책을 펼쳐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최우선과제로 삼겠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한 한층 정교한 맞춤형 지원으로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 구정 주요 방향과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는 구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구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산악전시체험관’, ‘청자가마터 체험장’, ‘국제규모 인공 암벽장’ 건립 등 역사문화관광 명소 만들기에 힘써왔다.

특히 암벽장 조성에 맞춰 북한산을 등반하는 외국인 등산객을 대상으로 등산화 대여사업을 시작한다.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만들겠다. 전국의 대표 보훈행사로서 입지를 다진 ‘4·19 혁명 국민문화제’도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할 참이다.

이제 곧 10년간 진행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남은 퍼즐 조각을 꿰맞출 일만 남았다. 최종 도착점은 북한산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도심지 체류형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구의 ‘매력적인 발전도시’ 분야 계획은 ‘도시재생’이 뼈대를 이룬다. 수유1동 지역을 비롯해 4·19사거리 일대, 인수동 어진이 마을 등지에서 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4·19 사거리 일대는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재생돼 탐방객을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경제를 마련하기 위해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 사업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고품질 재활용 사업을 펼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춰 섰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한다.

구는 올해 돌봄 SOS센터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종합체육센터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도 예정대로 2022년까지 문을 열도록 하겠다.

●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도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올해 주요 핵심사업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구의 핵심 의제는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완성이다. 그 중심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을 구상한 이유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다.

역사문화관광 사업으로 ‘근현대사기념관’, ‘너랑나랑우리랑 산책로’ 조성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특히 동학운동부터 4·19혁명까지 민중이 일궈낸 대한민국의 생생한 격동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근현대사기념관’과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투어는 구의 대표 관광코스다.

올해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청자가마터 체험공간’, ‘산악전시체험관’,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도 내년까지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이동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시작점은 올해 초여름 도심 속 휴양콘도미니엄과 함께 들어서는 산악전시체험관이다. 위치는 북한산 자락 어귀다. 체험관은 우이동 유원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로 현재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내부를 꾸미고 배치하는 일만 남았다. ‘북한산’, ‘엄홍길’, ‘히말라야’를 주제로 체험의 요소가 더해진 공간이 핵심이다.

방문객들은 히말라야와 북한산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코스가 재현된 입체모형 암벽등반으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히말라야 기후와 유사한 얼음동굴에서는 극한 추위를 간접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상현실 체험시설을 통해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짜릿함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변화의 기폭제는 내년 봄에 들어서는 우이동 가족캠핑장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 4월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 상반기에 문을 열 캠핑장은 1단계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우이동 316번지 일대에 다목적 잔디마당 등을 조성해 가족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인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 남은 민선7기를 임하는 각오.

지난 10년간 구정을 펼치면서 깨달은 핵심은 주민 소통의 중요성이다. 소통의 과정에서 하나씩 쌓아올린 신뢰가 구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민선 5·6기부터 7기까지 구의 핵심 의제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비롯해 교육, 발전, 안전,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발전의 밑돌들이 하나씩 갖춰지기 시작했다. 남은 과제는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정정책에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사인여천의 철학을 실천하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주요 역점사업들 모두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사업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성과도 낼 수 있었다. 남은 세부사업 또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❶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본지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❷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지난해 12월 폐비닐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❸ 하늘숲속 개소식에서 박겸수 구청장이 운영단장과 마을활력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❹ 박겸수 구청장이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내 설치된 스마트 안전보관함을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❺ 박겸수 구청장이 수유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 여파에 따른 현황과 배달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❻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현판. ❼ 강북구가 지난해 9월 경찰청 주최의 범죄예방대상에서 우수공공기관에 선정됐다. 〈강북구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

인천 미추홀구는 4일 권혁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행정지원반과 접종추진반 등 2개 반에 백신수급팀과 접종시행팀·이상반응팀 등 모두 6개 팀으로 구성된다. 또 의사회·의료기관·경찰서·소방서·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예방접종 관련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만18세 이상 주민 70%에 해당하는 24만 명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주민 협조, 행정과 의료진의 사전준비, 철저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2020년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

인천 부평구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인천시 내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추진체계 강화와 공직자의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컨설팅 등 의견제시 제도 추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된 지역의 소 공인들에게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해 영세한 소공인의 생산 경쟁력을 향상 시킨 사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목재산업 분야 2개 사업 공모 26일까지

인천 서구는 '2021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과 '성형 숯 자살방지 문구 삽입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2개소가 대상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보조금 1억 2000만 원(60%)과 자부담 8000만 원(40%)이 지원조건이다. 사업주요내용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 교체와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신규 설치 등이다.

성형 숯 자살방지 문구 삽입사업은 성형 숯 포장지 등에 자살방지 및 일산화탄소 위험성 문구 등을 삽입해 자살을 예방하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대상이 된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보조금 1400만 원(70%)과 자부담 600만 원(30%)이 지원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와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560-4792)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슬기로운 행복꾸러미, 오!해피데이 孝차림' 추진

인천 옹진군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옹진군 관내 수혜자 73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슬기로운 행복꾸러미, 오!해피데이 孝 차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소외계층의 주요 영양공급원이었던 희망 나눔 밑반찬 전달 및 사랑 나눔 무료급식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영양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양을 고려한 간편식과 KF94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담아 만든 행복꾸러미 키트와 매월 생일을 맞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축하 카드와 수건선물세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어르신들 행복한 설맞이 위한 떡국 떡 나눔 행사

인천 중구 율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저소득 어르신들의 행복한 설맞이를 위한 떡국 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율목동 협의체는 매년 설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떡국 떡을 지원해 드린 가운데, 특히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고생한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 떡 80kg를 준비해 40가구에 전달했다. 행사는 율목동 협의체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마련, 의미를 더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배부 전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겨울철 어려우신 점은 없는지 여쭙고 새해에도 건강하길 당부하는 등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뒤, 물품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각 가정에 전달했다.

류한상 위원장(사진 왼쪽 첫 번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설 명절조차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 안타깝다"며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이웃사랑의 온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인천시·서구 '환경특별시' 조성 손 잡았다

서구와 함께 만드는 환경특별시 인천 〈上〉

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협약…박남춘 시장 친환경 행보 탄력
강화군과 공동 이용 가능 자체 광역소각시설 건립·운영…市, 전방위 지원

인천시와 서구가 3일 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제공〉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해 시와 서구가 손을 잡았다.

서구가 자체 광역 소각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나섰던 박남춘 시장의 '친환경 행보'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박남춘 시장과 이재현 구청장은 3일 시청에서 서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인천시·서구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 시장, 이 구청장을 비롯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김종인·김진규·임동주·전재운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서구청은 서구와 강화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와 관련 용역 등을 실시해 입지를 결정하고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서구에서 추진하는 자체 소각시설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이 준공돼 가동될 경우 청라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을 중지하고, 청라 자원순환센터의 폐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에 선정된 '서구 스마트 에코 리싸이클링센터' 구축 등에 대한 부지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구 자체 소각시설 건립계획 수립 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예외조건에 따라 관련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대책 마련 연구용역' 중간결과 및 서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주 내용으로 한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추진방안'을 지난해 말 시에 제출했다.

관련 추진 방안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소각과 매립에서 탈피한 감량과 재활용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소각량이 소량인 인접 지자체(강화군)와 공동으로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합리적.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약 한 달여 서구와 논의한 끝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wk-ok@jeonmae.co.kr>

연수구, 공공마스크 생산 본격 가동

지자체 최초 KF94 제조시설 구비
시·삼바로직스와 8일 개소식 진행
수익금 일부 지역사회공헌에 활용

인천 연수구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KF94 보건용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공공마스크 생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마스크 수급대란에 따라 지역 내 안정적 공공마스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과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지 9개월 만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경인지방식약청의 마스크 제조시설 현장실사를 마치고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마스크 생산을 위한 의약외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품목허가 인증을 완료했다.

그동안 구는 지난해 5월 제조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시설 용도변경과 임대운영사업자 선정, 시설 준공, 시험성능검사 의뢰,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마스크 포장지 인쇄와 시험가동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라인 시동과 함께 큰 도움을 준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최소 인원으로 간소한 개소식도 오는 8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동 탑피온 건물 4층에 위치한 공공마스크 제조 시설은 최대 1분에 60장이 생산 가능한 1개 라인으로 올해 200만 장의 예상생산물량 중 120만 장을 구민들을 위한 공공비축물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의 추가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인근 기초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마스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협조 요청과 계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구는 또 수익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반 사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공헌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연수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회적기업의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어렵게 이뤄낸 성과"라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미세먼지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6개 보훈지청에 양털 토퍼 240개를 전달했다. 서영섭(사진 가운데 오른쪽) 인천시지부 본부장은 각종 후원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건협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보훈가족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전국 16개 지방보훈청에
양털 토퍼 240개 전달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훈가족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3일 인천보훈지청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양털 토퍼 240개를 전달했다.

후원한 양털 토퍼는 각 보훈지청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보훈가족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사업은 동절기를 맞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방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협회는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2017년을 시작으로 4회째 실시하고 있다.

채종일 회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후원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따뜻한 힘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영섭 인천시지부 본부장은 "보훈가족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사업 외에도 국가보훈처와 연계,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조택상 제3대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취임

취임식 생략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

조택상(사진) 제3대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4일 취임했다.

조 신임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현대제철 통합노조위원장 출신인 조 부시장은 인천선인고등학교와 호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인천 동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중구·강화·옹진지역 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5대 동구청장으로 일할 당시 민간기업의 폐열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창의적인 행정 경험과 더불어 노동자에서 노조위원장, 정치인으로 성장과정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요구를 정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로 자신을 단련시켜 온 소통의 달인으로 정무감각이 뛰어나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조 부시장은 "45년 동안 인천에 살고 있고 제2의 고향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노조위원장, 구청장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모든 역량을 모아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주요현안과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 7천만원 확보

인천 계양구는 환경부가 주관한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해 구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전망, 온실가스 감축 실행과 적응책, 세부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다.

구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논현역, 월판선 급행역으로 재지정해야"

이강호 남동구청장, 월판선 문제점 개선 건의 〈上〉

국토부·기재부·시에 재지정 건의 요청서 전달
역별 수요·환승·역간거리 등 고려 결정 필요 주장

이강호(사진) 인천 남동구청장이 올해 착공 예정인 송도~판교 복선전철 노선에 인천논현역을 급행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시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4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강호 구청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시 등에 '인천논현역 월판선 급행역 재지정 건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월판선은 송도역에서 시흥시청, 광명, 인덕원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40.3㎞ 구간으로 인천 구간에서는 기존 수인분당선과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남동구에는 4개역(인더스파크역·호구포역·인천논현역·소래포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급행역으로 계획됐던 인천논현역이 지난 2018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급행 정차역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재정상 이유로 급행열차 정차역을 축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건의 요청서를 통해 "역별 수요와 환승, 역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논현역을 급행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인분당선 하루 평균 승·하차 기준 인원을 보면 인천논현역 9032명, 소래포구역 8328명, 호구포역 5595명 등 논현동 일대에만 하루 평균 2만30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인천논현역을 지나는 제2경인선 철도 건설과 인천도시철도2호선 논현연장선이 추진되는 만큼, 늘어나는 환승 수요에 맞춰 이용객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흥시청역에서 광명역까지는 거리는 9.7km이며, 광명~인덕원역까지의 거리는 11.1km, 인덕원~판교역까지의 거리는 12.6km다.

이강호 구청장은 "송도에서 시흥시청역까지의 거리가 16.2km로 간격이 길어 중간에 위치한 논현역을 급행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인천 조성 박차 〈上〉

전국 최초로 치매 가족 위한 영화관 운영

동구 미림극장에 내달 개관
인간존중 돌봄 기법도 도입

인천시에 전국 최초로 '치매친화 영화관'이 운영되고 공공요양기관에 인간존중 돌봄 기법이 도입된다.

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에 발맞춰 치매환자에 대한 인간 중심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치매환자와 더불어 사는 인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광역치매센터 1곳과 치매안심센터 10곳을 중심으로 치매 조기검진·상담·사례관리·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치매를 바라보는 의료적 접근의 관점을 치매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바꿔 당사자들의 생각과 삶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올해 신규 치매관리 중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계획됐다. 특히 치매친화 영화관을 비롯 ▲ICT 활용 비대면 돌봄 사업 ▲산림 및 농림 치유 프로그램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인간존중 돌봄 기법 휴머니튜드 도입 등이다.

먼저 내달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가 동구 미림극장에 문을 연다. 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치매환자와 가족·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치매 진단으로 인해 문화·여가 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초로기 치매환자가 영화관 직원으로 활동하며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터도 제공한다.

아울러 초로기 치매환자(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는 두뇌톡톡! 뇌건강학교를 통해 전담 쉼터 이용이 가능하다. 뇌건강학교는 지난 2018년 마련된 뇌건강 커뮤니티 공간으로 북카페 및 뇌건강 체험관, 인지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재가 치매환자의 치매관리와 코로나 시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돌봄 매니저를 양성하고 지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경기 안양시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안양관내 거주 취약노동자로서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 격리 이행 확인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전자 우편(aygieob@korea.kr)이나 우편(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또는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 오산시는 올해 1억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배관이 낡아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 원(옥내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오산/ 최승필기자 <choi—sp@jeonmae.co.kr>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강원 고성군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상해사고에 대비,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는 정부가, 25%는 군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19곳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4명으로 지원 및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각 시설별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이며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 원 당 50만원씩 증액,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 조성 4억 투입

강원 철원군은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중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로 총4억원을 확보해 상반기내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동송체육관 내 일반인 게이트볼장을 장애인 전용 구장으로 개보수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BF인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와 LED 등기구, 인조잔디 교체 및 자동문 설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달 중 실시설계 완료 후 상반기내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비접촉 면회 태블릿 PC 구입비 지원

강원 속초시가 코로나19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면회가 비접촉으로 제한됨에 따라 태블릿PC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기 부족으로 비접촉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시설당 6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접촉면회 기기구입비 지원은 '2021년 포스트코로나 신규시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900만원이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이번 시책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80여명과 보호자가 실질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희 시 가족지원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고령층의 안전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사업 26일까지 접수

강원 인제군이 추진 중인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사업이 올해 4년차 마지막 사업을 8일부터 26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혼잡한 민원접수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순회 접수를 시행하며 순회일정은 상남면(8일)·서화면(9일)·남면(15일)·기린면(16일)·북면(19일)·인제읍(22일) 순으로 진행한다. 또한 군청 경제협력과에서 기간 내 상시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인제 곳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660개 업소의 실내·외 환경개선과 노후설비,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 연차사업을 통해 평화지역 인제 곳곳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제/ 이종빈기자 <ejb@jeonmae.co.kr>

"여주 가남일반산단 인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가남일반산단 조성사업 착수 설명회 개최…주민 질의응답·건의사항 수렴
市 "주민 이익 우선고려 민·관 충분한 소통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

경기 여주시는 맞춤형 개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최근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남읍 삼문리 일원이 가남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으로 추진시 진입도로 설치 위치 등을 논의하고 참석 주민들의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거수 시 팀장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남읍과 시 전체에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의 도로변에 접한 지역보다는 맹지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당사자 및 주민들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공장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시 경제 활성화 여건 향상을 위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오는 11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통해 내년에 사업 고시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박시선 의장은 "가남 일반산업단지가 가남읍과 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조속한 사업추진과 완료를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되기를 바라며 의회 차원의 역할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대준 읍장은 "새로 추진되는 산업단지가 가남의 주요 농산물과 연계돼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주/ 김영일기자 <Y1—kim@jeonmae.co.kr>

신동헌(맨 오른쪽) 경기 광주시장과 김상호(가운데) 하남시장, 정동균(맨 왼쪽)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제공>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건설 '맞손'

경기 광주시—양평시—하남시 공동건의문 채택…기재부·국토부 전달

경기 광주시와 양평시, 하남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건의문 채택은 전날 하남시청에서 김상호 하남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가 참석해 3개 시·군이 연계되는 국책 도로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3개 시·군은 지난해 11월 발표 예정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발표가 지연돼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개 시·군은 지연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으며 2018년에 체결한 상호협력 협약과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만세 보령 특산품으로 설 마음 전하세요"

보령머드화장품 최대 45% 할인…1+1 프로모션도

충남 보령시는 보령머드화장품을 오는 16일까지 최대 45% 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보령머드화장품'은 보령의 청정 갯벌에서 채취한 천연 진흙으로 만드는데 정제 과정을 거쳐 머드파우더로 만들어진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특별 할인 기간 할인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홀리데이 수분 기획 선물세트'로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에센스 마스크(10매), 헤어에센스, 머드솝, 샘플 등으로 구성돼 있다.

1+1행사 제품은 클레이팩+필오프팩이 2만 원, 에센스 마스크팩(10입)이 1만3500 원이다. 품목별로 남성을인원은 43%가 할인된 2만 원에, 남성스킨케어세트 33%가 할인된 3만 원에, 피부관리 세트는 26%가 할인된 2만 원에 판매된다.

또한 '만세 보령 농 특산품'인 삼광미 골드는 2019년 충남도가 실시한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우수 1위로 평가받는 등 최고의 맛과 향, 외관, 품질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보령산 조미김은 품질이 좋기로 정평이나 선물용 인기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만세 보령 주는 순수하게 찹쌀, 누룩, 물을 배합해 만든 약주로 성주산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100% 수작업을 통해 주조되고 있어 충남 술 TOP 10에 선정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 위쪽부터 보령머드화장품, 만세보령주, 삼광미 골드. <보령시 제공>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서산시 농특산물, 베트남 전역에 방송 탄다

홍삼가공품 등 25종 직매장 전시·품평회
베트남 최초 한류 채널 VTCK—TV 방영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특산물 소비부진 타개에 적극 나섰다.

시는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지역 VTCK—TV가 운영하는 직매장 2개소에서 25종의 서산시 농특산물 시식 및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설 명절을 전후로 해 현지인 반응 등 선호도 조사를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직매장은 호안끼엠, 떠이호 2개소로, 품목은 홍삼가공품, 마늘환, 편강, 아로니아식초 등 총 25종이다.

VTCK—TV는 현지 여론형성층과 유통업체 바이어 등을 초청하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베트남 전역에 방송키로 했다.

VTCK—TV는 베트남 최초 한류 콘텐츠 TV채널로 국내 SBS미디어넷,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충남 경제진흥원 등과 협약을 맺을 정도로 입지가 좋다.

시는 품평회 이후 선호 품목을 발굴하고, VTCK—TV 등 베트남 현지의 대형 유통업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임종근 시 농식품유통과장은 "베트남 시장은 한국 농식품에 호의적인 지역 시장"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횡성군,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본격 추진

사업비 71억 투입 역사광장 등 조성

강원 횡성군이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며 횡성역사 앞 4만8,829㎡ 부지에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 역사광장, 주차장, 소공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군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5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지난해 8월 공사를 착수해 올해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소요사업비인 국비 14억9300만원은 전액 확보됐다.

장신상 군수는 "올 연말 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 주변 새로운 지역관광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살맛나는 정주여건 조성과 횡성역사부터 시가지까지 아우르는 관광·문화, 여가·휴식 공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경기도장애인체육회—노조,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노조가 4일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2021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단체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노사 상견례 이후 약 1년 만에 합의했다.

도장애인체육회와 노동조합는 지난해 2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예비교섭을 통해 총 14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전문 1개항, 본문 88개항, 부칙 6개항, 총 95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노조원의 휴가, 휴게공간 확보 등 복리후생 확대 ▲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 남녀평등, 노동인권 보호 등이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코로나 19 상황임에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과정에 참여해 감사하고 이번 협약 외에도 노사 간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섭에서 일부 양보를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관 최초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고 앞으로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군포시, 제2기 혁신디자인스쿨 내달부터 운영

혁신·융합형 미래 인재 공무원 육성

경기 군포시가 혁신·융합형 미래 인재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2기 혁신디자인스쿨을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인 혁신디자인스쿨은 평소 혁신행정을 추구해온 한대희 시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군포 100년을 이끌어갈 혁신공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 자체 특별교육프로그램이다.

시는 6급에서 8급 공직자 25명 안팎을 선발해 내달부터 11월까지 혁신디자인스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혁신과 리더쉽 역량강화 교육, 실무중심 전문 직무교육, 사업 현장 시찰과 학습 등으로 특히 올해는 미래 군포 100년 개척을 위한 미래전략과제 발굴 심화교육이 중점이다.

또 연말에 분임별 연구과제 보고회를 열어 우수 직원들을 포상하고 주요 과제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강민원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해 혁신디자인스쿨 운영상 장·단점을 분석해, 미래지향적 공직자 육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기 혁신디자인스쿨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단을 재구성해 군포시의 싱크탱크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정선군, 설 맞이 정선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올해 13억7천만원 투입 상품권 발행

강원 정선군이 설을 앞두고 지역자금 유통의 선순환을 위해 정선아리랑상품권과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인 '와와페이'특별할인판매에 나섰다.

군은 4일 가계경제를 돕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선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 결과 161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으며 올해는 국비 11억원, 군비 2억 7천만원 등 총 13억 7천만원을 투입해 상품권을 발행한다.

군은 상품권 구매를 위해 금융기관 업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는 등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 시대에 부응, 젊은 층과 관광객까지 고객 확보가 가능한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를 운영,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와와페이는 충전식 체크카드(NH농협은행) 형태로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혜택이 있고 정선지역 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중 NH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상품권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금산군, 축산분야 보조사업 39억 투입

한(육)우·낙농·양돈 등 38개 분야

충남 금산군은 올해 축산분야 보조사업 38개 사업에 총 39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분야별는 한(육)우 분야 7개, 낙농 분야 4개, 양돈 분야 3개, 양계 분야 2개, 기타 축종 분야 6개, 조사료생산 분야 3개, 가축분뇨 및 기타 분야 13개 사업 등이다.

특히 악취 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 악취개선제, 가축분뇨 수거비용 등을 지원해 군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 환경을 육성한다.

또 가금농가 폭염피해 예방를 비롯해 시설개선, 현대화, 경영안정 등 지원으로 금산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군은 해당 사업들에 대한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안양시,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우뚝'

행안부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경기 안양시가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최대호 시장을 포함 한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감동 행정의 시작'이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작으로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및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징계소송 등에 처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정비에 앞장섰다.

지난해 연초에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국 최초 적극행정 특별승진을 배출했고, 2019~2020 2년 연속 규제개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및 동기부여에 기여했다.

최대호 시장은 "적·재·적·소, 맞춤형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최대 30만원 지급

전남 구례군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상품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 할 경우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10~3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군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로, 차량 소유자(원동기 포함)에게는 30만원 상당, 차량 미소유자는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자진 반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 면허반납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 구례/ 양관식기자
<yang-ka@jeonmae.co.kr>

2030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대구 중구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할 (예비)청년 창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문화, 예술, 관광, 한방 등 중구특화분야와 의료관광분야에 창의적이고 성장 유망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및 3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7명을 선발해 창업사업장 임대료를 포함해 시제품 개발, 창업마케팅, 맞춤형 창업 컨설팅 등 1년간 총 2000만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한다.

또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와 센터에서 보유한 공용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고일 현재 (예비)사업장을 중구에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시 거주 만39세 이하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서 대구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jylee@dgmt.or.kr)로도 신청가능하다. 대구/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코로나19 방역 논의

경북 청도군은 최근 이승율 청도군수 주관으로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및 설 명절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군민안전 대응체계 구축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수립 ▲응급상황 대비 비상체계 확립 ▲설 성수품 수급관리 및 경제안정대책 ▲맑은 물 공급 대책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청도 농특산물 판매 홍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10개 분야에 대해 부서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설 연휴동안 인근 대도시 관광객의 내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8일 '일제방역의 날'로 지정해 전 읍면 동시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명절을 맞이해 소외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군 전 공직자들이 복지도우미 활동을 추진하고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품 지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청도/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경북도 적극행정' 코로나 위기 속에도 빛났다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경북형 면마스크·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 가족치료실 도입 등 호평

경북도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평가항목인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 적극행정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의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먼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북형 면마스크'의 경우 이철우 도지사의 적극행정 뒷받침 속에 도를 넘어 전국 자치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형 면마스크'는 공무원이 직접 기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안했고 국내 인증기준 부재 등의 장애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확산예방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해 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 가족치료실을 도입한 사례는 도내 환자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적인 자치단체 간 협력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이 지사가 '직원만남의 날',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등을 통해 수시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직원에게 적극행정을 독려해온 점 또한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홍보 노력 분야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탁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과거의 관습제도에 얽매여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감방에 안 가는 한 모든 것을 다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허석(왼쪽 두번째) 순천시장이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한나(오른쪽 두번째) 관장에게 사랑의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허석 순천시장, 설 맞이 복지시설 비대면 위문

시설 외부서 전달 종사자들 격려

전남 순천시는 허석 시장이 설을 앞두고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 현장을 위문했다고 4일 밝혔다.

시 모든 복지기관과 시설은 코로나 19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와 외출 등이 제한돼 생활자 및 이용자를 비롯한 종사자들 모두 위축돼 있는 상태로 심리적 방역이 절실한 실정이다.

허 시장은 과일과 쌀 등의 위문품은 시설 외부에서 전달하고 집단 감염 예방에 애쓰고 있는 종사자들과 이용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시는 명절마다 관례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시설을 방문, 전달하던 위문품을 주무부서에서 일괄 전달, 취약계층에게는 비대면으로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 코로나 시대 복지실현 방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수련 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설 명절 비대면 위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4750가구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2곳이다"며 "시는 코로나19 시대에 더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지현장을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진주시, 안정적 수돗물 생산·공급 만전

설 연휴 시설물 특별점검·비상근무체제 전환

경남 진주시가 설 연휴 안정적 수돗물 생산·공급에 나섰다.

시는 수돗물 생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취수장시설을 시작으로 정수장 시설 및 압장, 배수지에 대한 설비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조치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취수펌프를 비롯한 수·변전시설 등 취수시설의 운영실태 및 안정성 유무 ▲도수관로의 누수 및 파손 여부 ▲정수장의 각종 펌프와 밸브류의 정상작동 여부 ▲여과지 운영의 이상 유무 ▲염소 등의 유해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 ▲가압장 및 배수지 정상작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비상시 응급 조치를 위해 협력업체를 지정하고 급수대행업체 6개사와 직원 40여명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설 연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한편 시는 올해 환경부에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선정돼 지방상수도 국고보조사업 4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수돗물 유충고와 같은 형태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들여 여과지 바닥 및 수조 구조물 보강, 여과지 밀폐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여과지 주변 화단 정비 등을 포함하며 오는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정수장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수돗물 신뢰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의령군, 맹견보험 의무화 시행…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3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경남 의령군은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맹견 소유자 중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1차 위반은 1백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5가지 품종의 맹견은 크기와 무관하게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맹견의 소유자는 꼭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마스크,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나와 모두를 위한
'한 장'의 위력

먹을 땐
말 없이
말할 땐
마스크 쓰GO!

주의!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질병관리청

제주도, 카지노 업계 이미지 개선 추진

제주도는 카지노 업계의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카지노 업계의 지역사회 기여를 홍보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주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임직원 중 교육 우수자 등을 선발해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광장 2개소 명칭 변경

충남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의 광장 2개소의 명칭을 '노을 광장'과 '갈매기광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차적으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장명칭 10개 후보작을 선정한 후 시민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투표를 통한 공모해 '노을 광장'과 '갈매기광장'으로 최종선정했다.

선정된 '노을 광장'은 해수욕장에서 노을을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하루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처음과 따스하게 지는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선정됐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성남시, 공약사업 추진 '순조'

136개 중 75개 완료…추진율 82%
시민안전·청년케어 분야 이행 완료

경기 성남시는 '민선7기 공약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분기 총 136개 공약사업 중 75개 사업이 완료됐고 58개 사업은 정상 진행되고 있어 추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일부 추진 중이다.

특히 시민안전과 청년케어 분야는 추진율 100%로 이미 공약 이행을 완료했고 장애인 복지(99%), 청년일자리(98%), 성남형일자리(97%)분야가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는 재난안전관실이 100% 추진율을 기록했고 환경보건국(78%), 복지국(75%), 행정기획조정실(73%), 도시주택국(67%) 순이다.

또한 이행이 완료된 공약사업은 중앙시장 현대화시설 완공, 영성여중부지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시장 직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조직 신설, 공공임대주택 확충, 성남벤처펀드 3000억 원 확대 조성,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 및 공공정보 확대,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개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민안전보험 신설 등이다.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지역 경제 살리기에 300억 투입

고양시, 2차 특별휴업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 업종 대상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9월 진행됐던 제1차 특별휴업지원금의 연장선이지만 그 대상과 지원액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시는 조속한 지원금 지원을 위해 '제252회 고양시의회'에 수정예산을 제출해 전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5일 수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5279개소와 영업제한 1만 6307개소 등 총 2만 1586개소 중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체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강원유통업협회 횡성지회 제공>

강원유통업협회 횡성지회, 횡성역에 지역 가공식품 무인판매대 운영

사)강원유통업협회 횡성지회가 KTX 횡성역 로비에 무인판매대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가공식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나섰다. 최근 장신상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첫 운영을 시작한 무인판매대는 ㈜진삼애 등 관내 9개 업체가 참여, 약 30여개의 지역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 판매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가공품 특판전이 진행된다. 무인판매대는 오는 4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진주시 공고 제2021-301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을 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5일
진 주 시 장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다목적 · 아동 복지센터 건립사업
나. 위 치 : 경남 진주시 인사동 9-1 (구)영남백화점
다.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118면), 아동복지시설,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
라. 사업기간 : 2020 ~ 2023년(4년간)
마.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토 지 : 불임조서 참조
나. 물 건 : 불임조서 참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진주시청 홈페이지 게재하며 물건조서의 경우 중앙 일간신문 공고 생략**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년 2월 9일 ~ 2월 19일
※ **열람시간은 09:00~18:00 이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진주시청 건설하천과(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다. 열람내용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 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스스로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확인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아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감정 (보상금 지급 :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조치)
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 →소유권 이전후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보상금 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건설하천과(☎055-749-8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진주시)	편입지번	지목	면적(㎡) 공부면적	면적(㎡) 편입면적	건물명	층명	호실명	대지권지분	지분	소유자 성명	소유자 등기상주소	관계인 성명	관계인 등기상 주소	권리의 종류
1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호	880/229620	1/1	주식회사**영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			
2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호	880/229620	1/1	주식회사**영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			
3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호	880/229620	1/1	구*희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 한주아파트 가-*			
4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호	880/229620	1/1	최*	경상남도 진주시 창고문*번길*(옥봉동)			
5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호	880/229620	1/1	오*식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 해진아트빌라 비-*			
6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6호	880/229620	1/1	박*영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 남강한주단로 *			
7	인사동	9-1	대	2,296.2	19.0	영남백화점	제1층	제7호	835/229620	1/1	정*호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			
8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8호	527/229620	1/1	육*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동 *호(*동, *아파트)			
9	인사동	9-1	대	2,296.2	14.0	영남백화점	제1층	제9호	616/229620	1/1	김*홍	진주시 옥봉동 *	진주시	진주시 동진로 155	
10-1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0호	698/229620	1/2	김*진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진주시 박*순 방*식	진주시 동진로 1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 신대방한솔솔파크* 대구 수성구 범어동 * 범어청구아이조 *	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10-2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0호	698/229620	1/2	주식회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논*동)			
11-1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1호	698/229620	4/10	조*순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 코오롱하늘채*차이파트*동 *호			
11-2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1호	698/229620	3/10	이*수	경상남도 마산시 원월동 *			
11-3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1호	698/229620	1/10	김*선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 * 청송아파트 *호	진주시 김*환, 이*원 김*선, 조*순	진주시 동진로 155 창원시 소답동 * 마산시 삼남동* 마산시 교방동 * 청송아파트*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 코오롱 하늘채 *	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1-4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1호	698/229620	2/10	김*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길 *동 *호(중앙동3가, 신우회가로베스트)			
12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2호	527/229620	1/1	곽*연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 동신아파트 *			
13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3호	527/229620	1/1	박*주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 한보타워면산 *			
14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4호	527/229620	1/1	박*주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 한보타워면산 *			
15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5호	527/229620	1/1	류*진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말길 *동 *호(신안동, 골기*천로(아파트)			
16-1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6호	527/229620	4/10	조*순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 코오롱하늘채*차이파트*			
16-2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6호	527/229620	3/10	이*수	경상남도 마산시 원월동 *	진주시 김*환, 이*원 김*선, 조*순	진주시 동진로 155 창원시 소답동 * 마산시 삼남동 * 마산시 교방동 * 청송아파트*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 코오롱 하늘채 *	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6-3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6호	527/229620	1/10	김*선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 * 청송아파트 *호			
16-4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6호	527/229620	2/10	김*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길 *동 *호(중앙동3가, 신우회가로베스트)			
17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7호	527/229620	1/1	박*수	진주시 봉곡동 *			
18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8호	527/229620	1/1	박*숙	진주시 상봉동 *			
19-1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9호	527/229620	4/10	조*순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 코오롱하늘채*차이파트*동 *호			
19-2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9호	527/229620	3/10	이*수	경상남도 마산시 원월동 *	김*환, 이*원 김*선, 조*순	창원시 소답동 * 마산시 삼남동 * 마산시 교방동 * 청송아파트 *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 코오롱 하늘채 *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19-3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9호	527/229620	1/10	김*선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 * 청송아파트 *호			
19-4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19호	527/229620	2/10	김*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길 *동 *호(중앙동3가, 신우회가로베스트)			
20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0호	527/229620	1/1	조*동	함경군 삼기면 일부리 *			
21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1호	527/229620	1/1	김*순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춘장리 *			
22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2호	527/229620	1/1	박*식	진주시 주인동 156 한주파크빌딩 *			
23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3호	527/229620	1/1	김*순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춘장리 *			
24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4호	703/229620	1/1	유*식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			
25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5호	703/229620	1/1	이*천	서울 중랑구 면목동 *			
26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6호	527/229620	1/1	주*지	진주시 이현동 *			
27	인사동	9-1	대	2,296.2	14.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7호	616/229620	1/1	김*성	진주시 천전동 * 삼천리산 기동 *호			
28	인사동	9-1	대	2,296.2	18.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8호	792/229620	1/1	김*원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번길 * (상봉동)			
29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29호	703/229620	1/1	김*원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번길 * (상봉동)			
30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0호	880/229620	1/1	김*원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번길 * (상봉동)			
31	인사동	9-1	대	2,296.2	4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1호	1760/229620	1/1	김*현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번길 *(망경동)	경상남도청공제단 진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원	창원시 대원동 123 창원경제센터빌딩 4층(소관: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상정지사)경상남도 진주시 관문로*	기압류 압류 압류 근저당권
32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2호	880/229620	1/1	주식회사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호 (강남동, 동성기든타워상가)			
33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3호	880/229620	1/1	주식회사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호 (강남동, 동성기든타워상가)			
34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4호	527/229620	1/1	김*희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번길*			
35-1	인사동	9-1	대	2,296.2	8.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5호	352/229620	1/2	김*진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진주시 박*순 방*식	진주시 동진로 1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35-2	인사동	9-1	대	2,296.2	8.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5호	352/229620	1/2	주식회사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36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6호	570/229620	1/1	최*식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 삼호그린아파트 *호			
37	인사동	9-1	대	2,296.2	9.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7호	395/229620	1/2	김*진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진주시 박*순 방*식	진주시 동진로 1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 대구 수성구 범어동 *	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37	인사동	9-1	대	2,296.2	9.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7호	395/229620	1/2	주식회사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논현동)			
38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8호	659/229620	1/1	최*식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번길*호(망경동, 삼호그린아파트)			
39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39호	527/229620	1/1	강*성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 기동 *호(하대동, 삼전차관선)			
40	인사동	9-1	대	2,296.2	8.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0호	352/229620	1/1	양*숙	경상남도 진주시 문문동 * 현대아파트 *			
41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1호	527/229620	1/1	유*진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			
42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2호	703/229620	1/1	주식회사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호 (강남동, 동성기든타워상가)			
43-1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3호	703/229620	4/10	조*순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 코오롱하늘채*차이파트*	김*환 이*원 김*선 조*순	창원시 소답동 * 마산시 삼남동 * 마산시 교방동 * 청송아파트 *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 코오롱 하늘채 *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43-2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3호	703/229620	3/10	이*수	경상남도 마산시 원월동 *			
43-3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3호	703/229620	1/10	김*선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 * 청송아파트 *호			
43-4	인사동	9-1	대	2,296.2	16.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3호	703/229620	2/10	김*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길 *동 *호(중앙동3가, 신우회가로베스트)			
44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4호	527/229620	1/1	홍*희	진주시 상봉동 *			
45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5호	527/229620	1/1	우*애	진주시 첨암동 * 현대아파트 D동 *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175	가압류
46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6호	527/229620	1/1	김*원	진주시 상봉동 *			
47	인사동	9-1	대	2,296.2	8.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7호	352/229620	1/1	장*정	진주시 봉곡동 *			
48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8호	527/229620	1/1	하*지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 *(봉곡동)			
49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49호	527/229620	1/1	이*동	진주시 신안동 * 흥한아파트 *동 *호			
50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0호	527/229620	1/1	장*화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 광가*차현대아파트 *			
51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1호	527/229620	1/1	정*규	부산 남구 남천동 * 첨진대장아파트 *동 *호			
52	인사동	9-1	대	2,296.2	8.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2호	352/229620	1/1	양*숙	경상남도 진주시 문문동 * 현대아파트 *			
53-1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3호	527/229620	1/2	김*진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진주시 박*순 방*식	진주시 동진로 1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23 신대방한솔솔파크 104동 904호 대구 수성구 범어동 88-6 범어청구아이조 102-1401	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53-2	인사동	9-1	대	2,296.2	12.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3호	527/229620	1/2	주식회사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54	인사동	9-1	대	2,296.2	22.5	영남백화점	제1층	제54호	990/229620	1/1	하*지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			
55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5호	659/229620	1/1	하*지	진주시 촉석로 *(봉곡동)			
56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6호	659/229620	1/1	하*지	진주시 촉석로 *(봉곡동)			
57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7호	659/229620	1/1	박*주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삼성아파트 *			
58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8호	880/229620	1/1	공*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현대아파트 *			
59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1층	제59호	880/229620	1/1	공*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현대아파트 *			
60	인사동	9-1	대	2,296.2	5.0	영남백화점	제1층	제60호	219/229620	1/1	공*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현대아파트 *			
61	인사동	9-1	대	2,296.2	5.0	영남백화점	제1층	제61호	219/229620	1/1	주식회사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호 (강남동, 동성기든타워상가)			
62	인사동	9-1	대	2,296.2	25.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호	1065/229620	1/1	유*지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			
63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2층	제2호	852/229620	1/1	박*하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 주안빌라 *호			
64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2층	제3호	852/229620	1/1	박*하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 주안빌라 *호			
65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2층	제4호	852/229620	1/2	신*식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			
66-1	인사동	9-1	대	2,296.2	45.0	영남백화점	제2층	제5호	1932/229620	1/2	진*배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			
66-2	인사동	9-1				영남백화점	제2층	제5호	1932/229620	1/1	정*섭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 현대아파트 *			
67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2층	제6호	638/229620	1/1	조*숙	진주시 평거동 *			
68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2층	제7호	638/229620	1/1	정*국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망경동)			
69	인사동	9-1	대	2,296.2	18.0	영남백화점	제2층	제8호	766/229620	1/1	오*목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 한보은빛마을 *			
70	인사동	9-1	대	2,296.2	18.0	영남백화점	제2층	제9호	766/229620	1/1	김*순	진주시 수정동 *			
71	인사동	9-1	대	2,296.2	18.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0호	766/229620	1/1	신*호	진양군 금산면 장사리 *			
72-1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1호	1022/229620	1660/3760	정*지	진주시 강남동 * 서성파라토피아 *호			
72-2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1호	1022/229620	1050/3760	박*미	진주시 신안동 *			
72-3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1호	1022/229620	1050/3760	강*태	진주시 평거동 * 한솔빌라-*			
73	인사동	9-1	대	2,296.2	18.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2호	766/229620	1/1	유*지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			
74	인사동	9-1	대	2,296.2	18.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3호	766/229620	1/3	최*순	진주시 상대동 *			
75	인사동	9-1	대	2,296.2	18.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3호	766/229620	2/3	정*연	진주시 계동 27 영남리빙주택 *호			
76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4호	1022/229620	1/1	허*숙	경상남도 진주시 첨암동 * 아트빌 *			
77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5호	1022/229620	1/1	허*숙	경상남도 진주시 첨암동 * 아트빌 *			
78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6호	1022/229620	1/1	허*숙	경상남도 진주시 첨암동 * 아트빌 *			
79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7호	1022/229620	1/1	문*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람곤 *			
80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8호	1022/229620	1/1	장*희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번길 * *동 *호(평거동,한보타운)			
81	인사동	9-1	대	2,296.2	2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19호	1022/229620	1/1	문*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람곤 *			
82	인사동	9-1	대	2,296.2	54.0	영남백화점	제2층	제20호	2330/229620	1/1	문*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람곤 *			
83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2층	제21호	638/229620	1/1	최*현	진주시 상봉동 *			
84-1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2층	제22호	638/229620	1/2	김*진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진주시 박*순 방*식	진주시 동진로 1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 대구 수성구 범어동 * 범어청구아이조 *	압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84-2	인사동	9-1	대	2,296.2	15.0	영남백화점	제2층	제22호	638/229620	1/2	주식회사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논현동)			
85-1	인사동	9-1	대	2,296.2	20.0	영남백화점	제2층	제23호	852/229620	1/2	김*진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진주시 박*순 방*식	진주시 동진로 1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 대구 수성구 범어동 * 범어청구아이조 *	압류 근저당권

오늘의 날씨

아침까지 찬바람 '쌩쌩'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8~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겠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 지역도 -5도 내외를 기록하겠으며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강원 산지는 오전부터 순간적으로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청양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청년수당 지급"

내달 조례 제정 추진
만 18~45세 취업 수당도

충남 청양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내달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나선다.

4일 김돈곤 군수는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청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가 밝힌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이며 지원 규모는 1년에 60만 원이다.

또 만 18세에서 만 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 수당, 취업 성공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취업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규모는 1인당 최대 250만 원이다.

김 군수는 이와 더불어 '청년의 해' 선포와 관련 청년층 지원을 위한 41개 세부실행사업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군수 스스로 정치적 수사와 용두사미 정책을 가장 경계했다"면서 "실현 가능성 있는 4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41개 사업은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7월과 8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 맞춤형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 청양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55.4%), 소득 부족(20.8%), 학자금대출 등 부채(15.0%), 문화적 빈곤(5.9%), 주거공간 부족(1.8%) 등에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군은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립, 생활 안정, 문화진흥, 복지증진, 여성배려, 협력 강화 등 6대 분야 41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은 청년수당 지급, 취업지원수당 지급, 시간제 여성 일자리 활성화, 다문화 여성 출산 지원,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 청년창업 공유빌딩 조성, 청년인턴제 운영, 빈집활용 주거 혜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등이다.

또한 육아 기본수당 지급, 전·월세 지원,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바우처사업, 청년 농업인 농기계 공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생활 안정보육 수당 지원, 청년기본자산제 운영, 드림카 운영, 교통카드 지원, 청년희망 택시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 군수는 "군의회 협조를 거쳐 신속하고 활기찬 청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남해군 제공>

남해 지족해협서 전통방식 개불잡이 한창

최근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는 거센 조류를 이용해 물돌이로 배를 움직이게 하고 그 반대편에는 갈고리를 설치해 바닥을 긁으며 잡는 전통방식의 개불잡이가 한창이다.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속초해경,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다중이용선박 대상 안전점검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연휴기간 해양사고 예방과 바다안전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4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연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가족단위 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대비 긴급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양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명절 전 후 운항 증가가 예상되는 관내 낚시어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설비, 인명구조장비 등 각종 안전점검 및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이행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불법조업 등 각 종 위법행위 단속과 사고예방을 위해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기로 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여유롭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연휴를 보내는 국민들도 안전수칙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과정 강사 모집

군포문화재단, 내달 1일까지

경기 군포문화재단이 내달 1일까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과정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매개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교육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며 내달 1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진을 모집한다.

운영예정인 프로그램은 총 7가지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강의법, 교육예술가 양성과정, 문화예술 기획 및 실무, 도슨트 양성과정 등 4가지의 정규강좌와 예술교육 저작권, 예술인의 재테크, 감정코칭 등 3가지의 특강을 계획 중이다.

각 프로그램별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팀이 해당 강좌를 운영하게 되며 수도권 내 문화예술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정규강좌의 경우 총 10회차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및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별강좌 강사에게는 강사등급에 따른 강사료가 지급된다.

재단은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총 7개 팀(개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군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hana9171@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세종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세종시가 설 연휴 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옥 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산청군,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

경남 산청군은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법과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 안내협조문을 발송한다.

반복위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중점점검을 실시해 관련법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에는 상황실을 운영,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경남도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시 신속한 업무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논산시, 청년키움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모집

충남 논산시는 오는 17일까지 '청년키움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90%를 지원받으며 청년은 2년간 사업에 참여한 이후 계속 근무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경우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총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24개월 이하인 만 39세 이하인 자이며 기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5인 이상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청년이 원하는 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홈페이지 또는 논산시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연결해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삼척시, 인구 회복방안 마련 총력

강원 삼척시는 인구 회복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인구감소 자료에 따르면 청년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학생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기숙사와 원룸으로 들어오지 않아 전입 대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996명이 줄었고 인근 도시의 신규아파트 과다 공급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가 전출한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총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입시모집결과,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경쟁률이 도내 대학 1위를 차지해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 지난해 빠져나간 대학생 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내달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기술연구원의 준공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것도 인구증가의 전망을 밝게 했다.

시는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약 3000가구의 아파트와 택지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도계 대학캠퍼스도시와 원덕 수소액화시설단지, 근덕 해양관광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등 읍면지역에 맞춤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적정인구와 관계인구 유지관리정책을 병행 실시해 인구유입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서천군, 가축질병 유입방지 총력

축산농장 주변·주요 도로 소독
공조체제 강화·기동 대응팀 운영

충남 서천군은 설을 앞두고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 또한 고조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귀성객에게 많이 노출되는 장소에 방역 홍보용 현수막 설치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축산시설과 차량 등 일제소독 실시 ▲소독반을 투입해 축산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소독실시 ▲전통시장 가금 거래상인·계류장·가금판매소 소독 이행철저 확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전 지도·교육 실시 ▲축산관계자 방역 SMS 발송을 추진한다.

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공수의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가축방역 기동 대응팀을 운영 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한 긴급 방역 태세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들은 축산농장이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농장 출입시 손씻기, 매일 소독하기, 외부인의 출입 통제, 모임 및 행사 금지, 매일 임상관찰 후 의심축 발생 시 신속 신고토록 당부했다.

노박래 군수는 "모든 축산농장과 축산 관계자들은 이번 일제소독에 적극 참여하고 설 연휴기간 중 농장 출입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안양예총 30년 발자취 책 한권에 '오롯이'

540여페이지 분량 '안양예총 30년사' 발간
문인·미술협회 등 8개 협회 역사·현황 기록

경기 안양예총이 창립 이후 30년의 발자취를 한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양예총과 소속 8개 협회의 활동사를 담은 '안양예총 30년사'를 발간했다. 총 5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안양예총 30년의 역사와 함께 안양예술문화의 변천사를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했던 '안양예총 30년사'에는 사진으로 보는 안양예총 30년을 시작으로 제언과 논총을 통해 안양지역 예술문화의 현황과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글과 함께 안양예총 30주년을 기념해 지역 원로 예술인들과 진행한 특별 좌담회를 지면에 실었다. 특히 좌담회에는 안양예총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로 예술인들의 애환이 진솔한 이야기로 담겨 있다.

이어 안양예총의 태동과 형성, 창립과 성장, 발전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의 역사와 현황, 안양문인협회, 안양미술협회, 안양사진작가협회, 안양음악협회, 안양연예예술인협회, 안양연극협회, 안양무용협회, 안양국악협회 등 8개 협회의 역사와 현황을 상세하게 담았다.

발간사에서 이재욱 회장은 30년사 발간의 의미를 "단순한 사실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지역 예술가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안양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최용덕 동두천시장, 사회복지시설·보훈단체 등 38개소 위문

6개소 직접 방문·위문품 전달
"어려운 이웃들 소외되지 않길"

최용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최근 설 명절을 맞이해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보훈단체 등 38개소를 위문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시장은 노인복지관 등 6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직접 방문하지 못한 나머지 32개소에는 위문품과 새해 덕담을 전했다.

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설을 맞아 위문품을 전달하게 됐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니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북돋으면 이번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보훈단체 등 38개소를 위문했다.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강원 철원소방서는 드론을 띄워 한탄강 물 윗길 및 얼음트레킹 코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철원소방서 제공>

철원소방서, 얼음트레킹 코스 안전점검 실시

드론 활용 얼음 두께 등 살펴

강원 철원소방서는 전날 드론을 띄워 한탄강 물 윗길 및 얼음트레킹 코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안전점검을 실시한 대원들은 트레킹 코스 얼음 두께 및 부교 안전사항, 코스 내 차량 진입구간 등을 살폈고 드론을 활용해 코스를 점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드론은 점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인명구조 현장, 기타점검 등 많은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양양군 '고맙다, 양양! 걷기 프로젝트' 추진

목표 달성자에 인센티브 제공

강원 양양군이 '고맙다, 양양! 걷기 프로젝트'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만19세 이상 군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걷기 모바일 앱 '워크-온'에 가입 후 목표 걸음 달성자에게는 2개월에 1회씩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4432명이 2개월 동안 목표 걸음 걷기에 도전한 결과 2580명이 성공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올해는 총 5회차로 운영되며 마지막 회차는 건강기부로 운영돼 양양군 연탄은행에 기부할 계획이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4일 바다에 빠져 위험에 처한 귀중한 생명을 구한 형제(김재성·김재희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보령해경 제공>

바다에 빠진 생명 구한 '용감한 형제' 화제

보령해경, 감사장 전달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4일 바다에 빠져 위험에 처한 귀중한 생명을 구한 형제(김재성·김재희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경 대천해수욕장에 남성 1명이 물에 빠져 떠밀려가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마침 주말을 맞아 전주에서 대천해수욕장으로 나들이 나온 형제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줄로 서로의 몸을 묶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당시 너울성 파도와 차가운 수온으로 자칫 구조자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신속하게 익수자를 육상으로 끌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해냈다. 형제 모두 평소 응급처치에 관한 관심이 있어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며 동생인 김재희 씨는 응급처치 자격증 취득해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가능했다.

감사장을 전달받은 용감한 형제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둔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ASF 감염 야생멧돼지 춘천·철원서 11마리 발견…방역 비상

강원 춘천과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1마리가 연이어 발견됐다.

4일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와 당림리, 오월리 일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광역울타리 안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방역대에는 3개 농가에서 4256두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와 홍천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또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인근 민간인통제선 밖 광역울타리 안에서도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발견됐다.

방역대에는 23개 농가에서 7만3440마리를 사육 중이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는 543건이다. 화천이 364건으로 가장 많고 춘천 51건, 인제 48건, 양구 36건, 철원 35건, 영월 8건, 양양 7건, 고성 4건 등이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포항주민들 미군헬기 사격훈련 재개에 반발 집회

주한미군이 4일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헬기 사격훈련을 재개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앞에서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주민들은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쓴 관을 올린 상여를 메고 사격장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아서면서 진입하지는 못했다. 주민 5명이 집회 시작 전 사격장 내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다가 군인과 경찰 등에 제지당해 밖으로 나왔다. 정오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4대가 사격장 상공에서 사격훈련을 했다.

이에 주민들이 함성을 지르거나 상여를 짊어지고 진입을 다시 시도했지만 큰 물리적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국방부장관, 연합사령관 직책을 쓴 관에 불을 붙인 뒤 자진 해산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유예를 통보할 때 주민 협의 없이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훈련을 강행했다"며 다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무증상 감염자 찾기 '숨바꼭질' 지자체들 지역전파 차단 총력

가족단위 검사·신속 PCR 무료검사
이동검사·요양병원 등 정기검사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를 넘어서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증상 감염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숨어 있는 지역 감염자를 발 빠르게 찾아내 대규모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428명 가운데 85명(19.8%)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된 감염자로 집계됐다.

새로운 확진자 5명 중 1명은 '숨은 감염자'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가족과 지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감염을 막기 위해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북 포항시는 이날까지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6일 내렸다.

지난달 31일까지 엿새 간 검사를 받은 시민은 13만1576명으로 이 중 25명이 무증상 확진자로 드러났다. 강원 동해시도 지난달 말 지역 내 4만2306가구마다 대표로 1명이 검사를 받는 '한 집 한 사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진단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 방식과 결과가 빨리 나오는 항원 검사의 장점을 합친 '신속 PCR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난해 12월 이를 처음 도입한 경기 여주시는 전체 시민 11만1000여명 가운데 3만4000여명(31%)을 대상으로 해당 검사를 한 결과 17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냈다. 증상이 없는 시민도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15곳(현재 8곳)을 운영한 결과 12만461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319명이 무증상 감염자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조용한 전파를 막고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열흘 동안 운영한 임시선별검사소 4곳에서는 2만8212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중에 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대학가 음식점 골목 '썰렁' 대학가 입학 시즌을 앞둔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의 음식점 골목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김인철기자

설연휴 휴게소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환경부 특별관리대책 추진
지자체별로 수거대책 수립

설 연휴 전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4일 환경부는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선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거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 방지안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내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을 배치하는 등 분리수거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 및 유통지원센터와의 협조하에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된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해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환경부는 전국 각 지자체에 임시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해 재활용폐기물 16만7000t의 임시 적환이 가능한 적환장 211곳을 마련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재고(2천200t) 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사건·사고

"중구체육회 전 임원이 간부 폭행" 신고로 수사

"인천지역 모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전직 임원이 회의 도중 다른 간부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쯤 "중구체육회 전직 임원 A씨가 산하 협회장 B씨를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당시 중구체육회 측은 A씨로부터 재임 기간 도중 납부한 이사회비 잔액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체 회의를 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산하 협회장 B씨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그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지구대에서 피해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또래 집단폭행·물구나무 강요 10대 2명 검거

지하 주차장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시키는 등 괴롭힌 10대 2명이 잡혔다.

4일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과 B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저녁 이들은 남양주시에 있는 한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구나무를 서게 한 후 괴롭히거나 다른 10대와 억지로 싸움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당시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C군이 피해 사실을 부인해 A군과 B양은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A군과 B양은 지난 3일 C군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했고 가해 학생을 상대로 철저히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잠실세무서 칼부림' 원한 관계 무게

5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분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모 씨(50)가 흉기로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2명도 공격했다. 사건 직후 남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 숨졌다.

세무서 직원인 피해자 3명은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날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정정했다. 남씨는 범행 당시 민원 업무차 세무서를 찾은 것은 아니라 피해자 A씨와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 남씨를 경찰에 두 차례 고소한 뒤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동 정

사회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위촉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5일 오전 9시 50분 중회의실에서 사회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

예산정책 현안 간담회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은 5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예산정책 현안 간담회에 참석.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5일 오전 11시 영천공설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

선비 충의 문화관 자문위원회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5일 오후 2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선비 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건축용역 자문위원회에 참석.

지속가능지역재단 이사회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는 5일 오후 2시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에서 지속가능지역재단 이사회에 참석.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간담회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5일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간담회에 참석.

예산정책 현안 간담회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5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21년 예산정책 현안 간담회에 참석.

코로나19 대응체계 점검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는 5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관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

김건수 서산시 이통장협의회장 선출

충남 서산시 이통장협의회 2월 정기총회에서 김건수 해미면(읍내3리·사진) 이통장협의장이 시 이통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2명이 입후보하고 15개 각 읍·면·동 통장협의회장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다득표를 얻은 김 회장이 시 이·통장협의회장에 당선됐으며 3년 동안 시이통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한편 시이통장연합회 임원으로 ▲부회장 장명순 음암면협의회장 ▲사무국장 김기의 대산읍협의회장 ▲감사 한상영 부춘동·박충진 운산면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운강 이강년 선생 관련 자료집 배포

경북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사업회는 문경출신 불멸의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선생에 대한 '운강자료집'(사진)을 지난해 말 발간해 4일부터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운강자료집'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거나 일반에게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못했던 운강 관련 판결문과 일본군 보병제14연대 토벌일지인 진중일지, 신문기사, 속오작대도 논문을 모아 실었다.

이 가운데 재판기록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휘하 의병장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있다. 진중일지에서 그동안 불확실했던 고모산성 진남루의 파괴가 일본군의 만행임을 발견해 확증했다.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피에 게재됩니다

충남도 공직자들, 월급 모아 나눔 실천

1000원 미만 월급 자투리 기부
취약계층 2840가정에 떡국키트 전달

충남도청 공직자들이 설을 앞두고 1000원 미만 월급의 자투리를 모아 도내 취약계층에 나눔을 실천했다.

도는 취약계층 2840가정을 대상으로 떡국키트 4000만 원 상당을 제작, 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정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떡국키트 구성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에서 직접 생산한 업체 물품을 선정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 대전충남양돈농협, 네이처오다,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받아 더욱 풍성하게 꾸려졌다.

해당 키트는 각 시군자원봉사센터와 142개 읍면동에 설치된 자원봉사 거점캠프를 통해 배분했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직자들이 봉사정신을 발휘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며 "더욱 촘촘한 방역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충남도는 떡국키트 4000만 원 상당을 제작, 도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충남도 제공>

하동군 진수수산, 12년째 온정 베풀어

김춘근·오영옥 대표
이웃돕기 성금 기탁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서 수산업을 하는 김춘근·오영옥 진수수산 대표가 지난 2010년 이후 올해로 12년째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베풀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하동군 금남면은 이들이 전날 면사무소를 찾아 설 명절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김춘근·오영옥 대표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내놓은 성금이 34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성금은 지난해 연말 200만 원을 기탁한 이후 한 달 만이어서 주위를 놀라게 했다.

김춘근·오영옥 진수수산 대표는 경남 하동군 금남면사무소를 찾아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하동군 제공>

김춘근·오영옥 대표는 "올해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설을 앞두고 면민이 좀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 맞이 손 만두 나눔

돌봄 필요 60가구 방문

설을 앞두고 강원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이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복지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 맞이 사랑의 손 만두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복지관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정성껏 빚은 만두 꾸러미를 나눠주는 '설 맞이 사랑의 손 만두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4일~5일까지 만두 빚기와 꾸러미 포장을 하고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꾸러미를 전달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60가구를 선정해 복지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각 가구를 방문해 정성이 가득한 만두를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행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관이 전하는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제공>
강원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설 맞이 사랑의 손 만두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중앙이엠씨 임성기 대표, 순천대 발전기금 기탁

"경제 어려워 학업 포기하지 않길"

순천대학교는 중앙이엠씨 임성기 대표가 학교발전을 위해 1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임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순천대 융합산업학과 졸업, 지난 2019년 3월부터 석·박사통합과정을 밟으며 학업을 이어가고있는 만학도다.

임 대표는 "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지도와 관심, 그분들의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경제가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원생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탁했다"고 말했다.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후배들을 위한 뜻깊은 장학금을 기부해줘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학업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중앙이엠씨 임성기 대표가 순천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순천대 제공>

최승준 정선군수 "어린이 안전 최우선돼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4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 군수는 장신상 횡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 푯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군수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인숙 정선교육장, 이동학 정선소방서장, 강희철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을 지목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선군 제공>

농협 군포시지부, 독거농업인에 생필품 전달

농협 경기 군포시지부가 관내 독거농업인을 찾아 농산물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갑자기 찾아온 한파와 폭설로 어렵움을 겪고 있는 농민 조합원을 위로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김성록 지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농업인, 소외계층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따뜻한 정으로 하나 되는 군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농협 군포시지부 제공>
농협 경기 군포시지부가 관내 독거농업인을 찾아 농산물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서승제 대천여중 교사 '2020 올해의 스승 상'

진로·인성 지도 능력 높이 평가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은 대천여자중학교 서승제 교사가 최근 '2020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4일 보령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조선일보사, 방일영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해 운영하는 '올해의 스승 상'은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스승을 발굴하고 행적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이번에는 유, 초, 중등 교사 중 전국에서 6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서 교사는 15년 전 대천여중에 근무하면서 '옥카티코러스' 합창단을 창단해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괄목할 만한 제자들의 진로 및 인성 지도를 인정받아 수상을 차지했다.

또한 보령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 시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 등으로 청소년 합창 문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활동이나 불우 시설에 빠짐없이 다니며 선한 영향력을 줬다.

서 교사는 "교단에서 내려가는 그 날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이라며 "정년 이후에도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대천여자중학교 서승제 교사가 '2020 올해의 스승 상'을 수상했다. <보령교육청 제공>

동양대, 제2회 소수서원장학금 장학증서 수여

"선비정신 가진 인재로 성장을"

경기 동두천시 소재 동양대는 최근 제2회 소수서원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소수서원은 소수서원장학금으로 동양대학교에 지난 2018년에 이어 매년 기부 약정식을 통한 인재양성기금으로 2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소수서원장학금을 받는 장학생들은 부모가 영주시에 거주하는 동양대학교 재학생으로 선비인성함양의 기초소양을 갖춘 자로 선발했다.

소수서원 김태균 원장은 "학생들의 맑은 눈빛이 희망스럽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동량으로써 소수서원의 선비정신을 가진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수서원에서는 지난 2018년을 5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7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으며 영주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살리기 위해 소수서원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 소재 동양대는 제2회 소수서원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 목포시에 성금 기탁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 만들고 싶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 전해지길"

씨월드고속훼리(주) 이혁영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타격을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남 목포시청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설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방역 사각 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을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의 손길을 주고 싶고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만들고 싶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비를 함께 맞으며 힘듦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마련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목포시 제공>
씨월드고속훼리(주) 이혁영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목포시청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포토뉴스

임채철 경기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에 감사패 받아

임채철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5)은 4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강원엔지니어링, 정선군에 비접촉식 체온계 기탁

강원 정선군은 4일 강원엔지니어링으로부터 비접촉식 체온계 20대를 기탁받았다. 기탁된 체온계는 지역 내 목욕탕과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업무지원센터, 9개 읍·면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광양시중부남녀의용소방대, 성금 200만원 전달

전남 광양시중부남녀의용소방대은 전날 광양소방서에서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남종섭 경기도의원, 용인다움학교 공사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난 2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특수학교로 설립 중인 용인다움학교의 마무리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마무리 공사와 개교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전국한우협회 고흥군지부, 한우불고기·사골 기탁

전남 (사)전국한우협회 고흥군지부는 전날 한우불고기와 사골 300만원 상당을 군에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순천교육청, 원격수업 거점학교 교원역량강화 연수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은 전날 순천승평중 컴퓨터실에서 순천관내 중학교 대표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원격수업 거점학교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영암군민속씨름단,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기탁

전남 영암군은 영암군민속씨름단에서 전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양양군 현남면 수동골상여소리보존회, 장학금 기탁

강원 양양군 현남면 수동골상여소리보존회는 전날 김진하 군수에게 인재육성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MK@jeonmae.co.kr>

제비 울음소리

금요논단

김 연 식
논설실장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 유명한 사회 개혁가인 동시에 실학자였다. 영조 시대인 1762년 태어나 현종 때인 1836년 사망했다. 영조 정조 순종 헌종 등 조선후기 4대의 왕을 거치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여유당전서 등 무려 500여권을 저술하면서 사회개혁을 적극 제시하며 변화를 추구했다. 조선왕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묵은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왕조를 인정하면서 국태민안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을 주장했고 각종 저술활동을 통해 중요성을 알렸다. 부친의 영향을 받아 일찍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후 천주교에 연루돼 포항과 강진을 유배됐지만 그의 실학사상과 목민관 정신은 아직도 공직자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수많은 저술활동도 했지만 개혁과 시대를 풍자하는 고시(古詩)도 많이 남겼다. 그의 고시 27수 가운데 제비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에 비유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제비가 집을 찾아다니는 애처로움을 표현한 고시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노력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애절함이 연상되고 있다. 그는 '제비 한 마리가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네. 말하는 뜻은 분명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하네. 느릅나무 홰나무 구멍은 많은데 어찌해 그곳에 가지는 않는가.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홰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라고 표현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력과 서민들의 관계를 풍자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규모에 따라 계층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양반과 서민으로 완전하게 제도화 되던 시기였다. 지배와 피지배로 나누어진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횡포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무시되는 시대였다. 당시 천주학을 접했던 다산 정약용은 인간의 평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황새와 뱀은 지배층의 몫으로 안정적인 반면 서민으로 표현되는 제비는 갈 곳 없어 남의 집 추녀 밑에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 하는 서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정약용이 제비를 등장시킨 것은 제비의 특성 때문이다. 제비는 3월 하순 한국에 찾아와 번식한 후 10월 하순 남쪽으로 날아간다. 여름 철새로 알려진 제비는 우리에게 익숙한 새로 흥부와 놀부를 비롯해 지금까지 사회풍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은 대략 음력 3월 3일로 우리민족은 삼짇날이라고 했다.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에 속할 만큼 귀한 날이었다. 음력 3월 3일은 봄이 시작되는 시기로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것에서 비롯돼 제비가 찾아오는 삼짇날을 길일이라고 생각했다. 제비는 따뜻한 봄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내다가 음력 9월 9일을 전후해 동남아로 이동한다.

얼마전 경실련이 집값에 대해 재미난 결과를 발표했다. 역대 정권별로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는 의외의 상황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내 시군 67개 아파트 단지 6만여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30평 기준으로 집값 상승은 문재인 노무현 정권 다. 2008년 당시 2억 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은 현재 4억6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단순한 수치로 2억6000만원이 올랐으며 이 중 96%인 2억5000만원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올랐다. 정권별로 상승규모를 보면 노무현 정권 1억1000만원 상승, 문재인 정권 1억4000만원 상승, 이명박 정권 3000만원 감소, 박근혜 정권 4000만원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좌우성향의 단체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경실련이라는 공공성 있는 단체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물론 형평성에도 균형을 유지했다고 판단된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연봉 3400만원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경기도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새와 뱀의 기득권에 눌린 제비가 남의 집 처마에 집을 짓고 살다가 떠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민들과 청년들은 평생 전셋집과 월세를 살아야 하는 설움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창원 등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대를 넘었으며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15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청년과 서민들이 10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양육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절망감만 주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언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열심히 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기성세대들의 삶과는 달리 이들에겐 포기라는 단어가 익숙해졌다. 어차피 안 되는 일 적당히 알하고 적당히 벌어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결혼생활도 힘들고 자녀양육도 힘든데 책임질 일 없이 편하게 살아야겠다는 인식이 슬픈 현실이 됐다.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이 청년과 서민들에게 포기를 유도하는 느낌이다.

제비울음소리가 청년들과 서민들의 울음소리가 되지 않도록 정권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땅에 집 없는 서민들의 제비울음 소리가 그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데스크칼럼

최 재 혁
지방부국장

봄은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고 했던가? 그렇다. 이제 봄은 막 시작됐지만 봄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봄에 대한 목마른 그리움은 계속 쌓여가지만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신축년 2월 3일은 봄이 온다는 입춘(立春)이다. 옛 날부터 궁(宮)에서 민가(民家)에 이르기 까지 가가호호(家家戶戶) 대문짝엔 새 봄을 맞아 집안에 크게 길하고 경사스런 일을 기원하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란 입춘첩(立春帖)이 나붙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고 죽었던 나뭇가지에 파란 잎들이 새로 돋는다. 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봄 춘(春)'자는 '석 삼(三)+사람 인(人)+날 일(日)'자의 합성어다. 갑골문(甲骨文) 자전에서 '봄 춘(春)'자를 찾아본다. '석 삼(三)'자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천지인(天地人)'을 뜻한다.그렇다면 '봄 춘(春)'자는 '사람이 하늘과 땅(自然) 그리고 부모 조상의 가르침과 그 뜻을 깨우치는 날'이 아니겠는가? 하늘을 우러러 '경천심(敬天心)'을 갖추며 생명의 바탕이 되는 대지(大地)를 감싸고 보호하는 '외경심(畏敬心)'과 지금의 나를 생존케 한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는 '효행심(孝行心)'을 '새롭게 깨우치고 궁행(躬行)하는 날'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부터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첫 절기 2월 초 입춘이 되면 입춘서, 입춘방을 써붙였다. 이는 성종13년(1482)에 임금이 글을 지을 줄 아는 이도 많으니 입춘을 맞아 각자 글을 써 대문에 붙이라고 한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실학자 유득공의 경도잡지에는 입춘 열흘 전에 승정원에서 문신들에게 시를 짓도록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국태민안 가급인족(國泰民安 家給人足)', '개문만복래 소지황금출(開門萬福來 掃地黃金出)'이나 용(龍), 호(虎) 글자를 거꾸로 붙이기도 했다. 후세에는 백성들도 입춘서를 붙여 두는 관습이 내려와서 대문에 흔히 '입춘대길'(立春大吉)과 짝이 되는 글귀로 '소원성취'(所願成就), 나 '만사형통'(萬事亨通)을 썼다.

자꾸만 '들 입(入)' 자를 마음으로 훔쳐와 썼다. 오독(誤讀)인 줄 알면서도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지와 창공에 봄의 기운이 차오르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렸다! 때문에 입춘(立春)이라 쓰인 앞에서도 마음은 그것을 천연덕스럽게 입춘(入春)이라 읽었다. 입춘(立春)은 '봄의 기운이 다다르다'라는 뜻이다. '설 립(立)'에는 물리적으로 선다, 설립하다는 의미뿐 아니라 '어떤 장소나 경우, 상황으로 나아가 다다르다'라는 뜻이 함께 있다. 서예가 다천(茶泉) 김종원은 '계절은 어떠한 지점으로 들고 나는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해, 계절은 기운의 성립을 말하는 까닭으로, 입춘절은 봄의 기운이 자라나서 나아가 다다른 절기'라고 설명했다. 입하(立夏), 입추(立秋), 입동(立冬)도 같은 이치로 찾아오는 절기다.

계절의 변화는 시간의 순서를 따르며, 거기에 세상만물이 들고 난다는 추론은 이 세계의 전모를 다 알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상당한 착각일지 모른다. 기운이 성립했기에 계절이 온다. 다시 말해 도민의 마음을 오독하지 말자. 함부로 민의(民意)운운하며 타인의 뜻을 제멋대로 훔쳐 쓰지 말자. 민의는 자라나서 나아가 다다르는 것이다. 마침 지난 3일이 입춘(立春)이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을 마냥 내걸고 싶은 계절이다. 아이들은 때때옷으로 세배가고, 어른들은 너나없이 그런 아이들을 예뻐했던 설날이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함께 가꿔가는 것이 세상이다. 이인삼각(二人三脚)과도 같은 것이 세상이려니!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해야만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제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독불장군이나 만기친람(萬機親覽)이란 있을 수 없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역사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서로가 서로를 주인공처럼 대접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세시 풍속은 옛날부터 전해 오는 우리 조상들의 관습으로 계절에 맞춰 행해지는 고유의 행사와 풍습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얼마 후가 되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예전처럼 즐거운 설 명절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루빨리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길 희망하면서 잊혀가는 우리의 세시풍속을 다시금 되짚어 본다.명절을 전후해 행해지는 세시풍속은 정월, 설 명절 간에 주로 행해졌다. 그 까닭은 정월이 농한기인데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신성한 기운이 솟구쳐 인간의 기원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으로는 정월 초하룻날 설날이 있다. 설날에는 설빔을 차려 입고 차례를 지내며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성묘도 한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달맞이와 다리밟기를 한다. 입춘에는 집안의 평안을 위해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축을 써서 기둥과 대문에 붙이기도 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과 정신을 상징하며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뿌리가 되어왔다. 그 뿌리 위에 우리 선조들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산업화와 IT시대가 도래하면서 설날을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 풍속들이 잊혀가고 있는 같아 우려와 안타까움이 교차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이어오면서 그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민족정신과 풍습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흔들림 없이 보존되고 계승·발전되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뿌리로 이어져가길 염원한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여러분의 투고, 사진, 만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농빌딩)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60 / 홈페이지 제보 jeonmae.co.kr 외부 필진의 칼럼, 기고, 독자투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독자투고

이 철 연
경기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 중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돼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해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해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해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원봉사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봉사시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교통경찰을 보조해 수신호 교통봉사 업무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경중을 고려해 가점의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준비 중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 분야의 봉사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이천시의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안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천시 교통봉사의 그 중심에는 모범운전회가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봉사의 중심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 나가야 이천시가 건강하게 발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천을 위해 그리고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봉사자들의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천의 교통질서가 확립되길 희망해 본다.

구부러진 협착증 허리, 2mm 미세관으로 20분 만에 세운다

의학칼럼

정 성 운
글로벌튼튼병원 척추센터장

겨울철 보통 수도관이 얼어 붙는다고 하는 영하 4도의 날씨일 때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이로인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이 온몸에 골고루 전달되지 못 할 경우 척추 디스크의 수분 함량 및 부착력이 저하된다.

딱딱해지고 작아진 디스크(척추 뼈 사이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역할을 함)는 척추뼈와 마찰시 뼈에 미세한 균열을 초래하고 이 사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 작은 뼛조각들이 자라게 된다.

이 상태에서 외부 활동시 추위로 인해 목과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취할 경우 척추에 강한 긴장감을 줘 척추뼈를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척추신경 구멍이 더욱 좁아져 척추관협착증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에는 찌르는듯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증 등이 있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타 질환으로 착각해 방치할 경우 운동 마비나 배뇨장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척추관협착증과 증상이 유사해 혼동하기 쉬운 질환에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심하다.

반면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가장 큰 통증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허리를 바닥에 대고 일자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릴 때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 달리 쉽게 들어 올려지는 특징이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시간 이 지날수록 허리→엉덩이→허벅지→무릎→종아리→발목→발바닥 순으로 악화된다.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신경이 눌리고 혈관이 막혀 다리가 붓는 부종이 생겨 보행 시 다리가 당겨 절뚝거리거나 몹시 시린 증상 있을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 될 경우 하반신 마비나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우선이다.

일반적으로 허리통증만 있을 경우 비수술적 요법인 경막외신경 형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법은 척추의 꼬리뼈 부분을 국소마취한 뒤 주사바늘이 달린 지름 2mm, 길이 40~60cm의 미세관를 이용해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부위를 잘라내는 방법이다.

이때 방사선영상 증폭 장치을 통해 시술 과정을 환부 절개없이 관찰해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 시술시간이 20~30분으로 짧아 출혈을 최소화 하고 주변신경 조직이나 근육, 장기 등의 손상이 적어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들도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회복이 빨라 젊은 환자의 경우 단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행장애가 있거나 마비증상이 있는 심한 협착증의 경우 수술적 요법인 척추연성 고정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 척추 연성 고정술은 환자의 허리 쪽을 3~4cm가량 절개 한 후 뎃자란 작은 뼈 조각 사이의 인대와 황색인대를 부분적으로 제거해 척추 관을 넓혀 주고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를 바르게 고정하는 치료법 이다.

또한 협착증으로 인해 뼈끼리 부딪혀 마모된 척추뼈 사이에 실리콘을 넣어 받쳐줘 추가적 변성 을 막고 수술 후에 보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자기진단을 통한 조기발견도 중요하지만 MRI 촬영과 같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완치율은 높이고 재발의 위험은 낮출 수 있다. 평소 척추강화를 돕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도 척추관협착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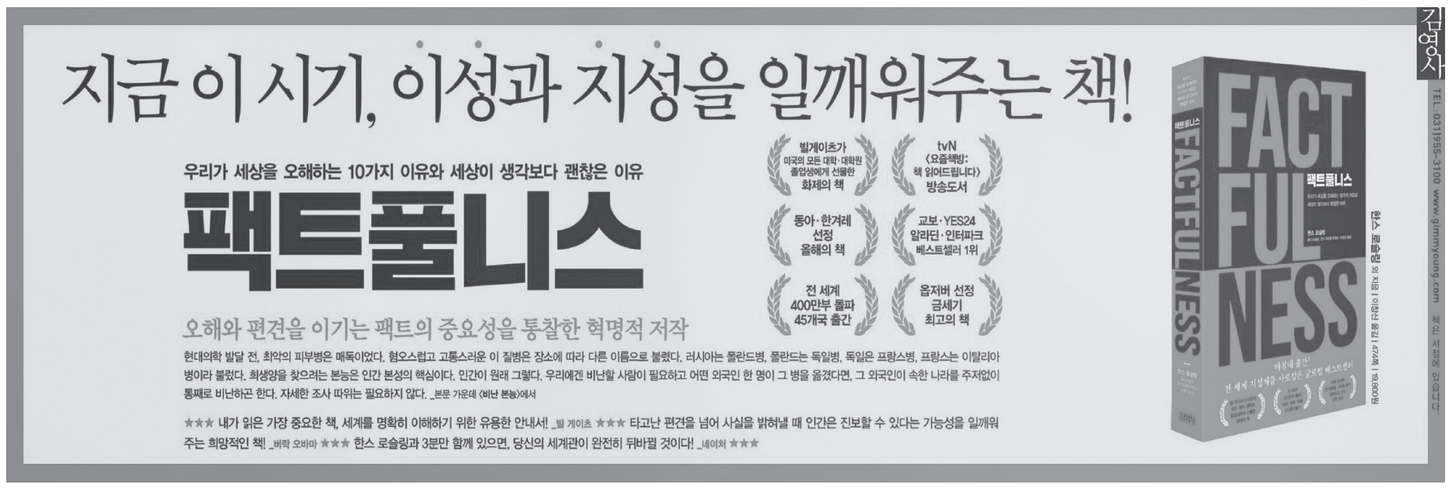
전국의 생생한 NEWS를 한눈에
전국매일신문 jeonmae.co.kr
대표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600 지 방 부 031-755-5622
경 제 부 02-749-0923 광고문의 070-4325-3858
사 회 부 031-755-3484 FAX 031-758-436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농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염창동, 덕신빌딩)
구독·배달안내
서울본사 02-749-0922 강원춘천본부 033-251-4866
인천본사 032-751-1478 충남본부 041-668-3722
경기북부본사 031-967-1616 충북본부 043-255-8877
대구본사 053-471-1111 호남본부 061-742-8181
경남본부 055-761-7882 서부본부 061-284-9781
세종본부 044-865-8000 제주본부 064-723-1950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구독료 : 월 1만6,000원 /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제휴사 : 중국 요령일보사 조선문보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리 산 59-1
2. 분묘 기수 : 6기(유·무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화장 후 봉안)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 공고인 : 조보행
대행사 : 산소마을(성우장묘) ☎ 010-3427-7771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동 반지 내 누락 분묘의 발생 시 이 공고로 갈음 한다.

2021년 2월 5일
위 공고인 : 조 보 행
위 대리인 산소마을(성우장묘) ☎ 010-3427-7771



전국매일신문

코로나19 특별대책·핵심조치 연장

외출은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 혼잡하지 않은 시간선택하여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모임과 이동 없이 안전하게!

- **동거 가족단위**로 **소규모**로 보내기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 주의**
-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
- 연말·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귀가 후 아프면 검사받으세요

-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 나거나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받고 집에서 쉬기
- 거리 두기 2단계부터 **증상유무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단, 검사증명서 요구 시 본인 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회사, 요양원 제출 등)

공통 방역수칙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별도 확인
-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행사 진행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처 질병관리청